

논문 제목 : Augustine과 Calvin의 인간론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Doctrines of Anthropology

Aurelius Augustine's and John Calvin's)

지도교수: 한상화 교수님

전공: 조직신학(Th.M)

제출자: 이 계 능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어거스틴과 칼빈의 인간론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Doctrines of Anthropology

Aurelius Augustine's and John Calvin's

亞細亞聯合神學大學校 大學院

神學科 組織神學 專攻

李 啓 能

어거스틴과 칼빈의 인간론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Doctrines of Anthropology

Aurelius Augustine's and John Calvin's

指導 한 상 화 教授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 함

2000 년 11월 일

亞細亞聯合神學大學校 大學院

神學科 組織神學專攻

李 啓 能

李 啓 能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主 審

副 審

亞 細 亞 聯 合 神 學 大 學 校 大 學 院

2000 年 11月 日

# 목 차

I. 서론 .....	1
A. 연구 목적 .....	1
B. 연구방법과 범위 .....	6
II. <b>Aurelius Augustine의 인간론</b> .....	8
A. 배경: 생애와 사상 .....	8
B. Augustine의 은총론적 인간론 .....	11
1. 인간의 창조 .....	12
1) 무로부터 창조된 인간 .....	12
2) 인간의 위치 .....	16
3)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	18
2. 은총이 상실된 인간 .....	22
1) 죽음에 처하게 된 인간 .....	22
2) 원죄 속에 있는 인간 .....	27
3) 노예의지 .....	32
3. 은총 아래 있는 인간 .....	35
1) 은총의 작용 .....	35
2) 본성회복과 구원 .....	39

<b>III. John Calvin의 인간론</b>	47
A. 배경: 생애와 사상	47
B. Calvin의 구원론적 인간론	49
1. 피조물로서의 인간	52
1) 인간창조의 특성	53
2) 창조에 있어서 인간위치	56
3)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58
2. 타락한 인간	60
1) 전적타락	63
2) 원죄 속에 있는 인간	66
3) 노예 신분 하에 자유의지	69
3. 구속된 인간	72
1) 칭의 된 인간	74
2) 성화 되는 인간	76
<b>IV. Augustine과 Calvin의 인간론 비교</b>	91
A. 일치점	91
B. 차이점	97
<b>V. 결론</b>	107
참고문헌	110
영문요약	125

## I. 서론

### A. 연구 목적

현대는 사상의 혼란과 아울러 사상의 빈곤을 절감하는 시대이다. 그리고 18세기 계몽기를 거치는 동안 인간은 무한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깨닫게 되지만, 신학계에서는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인본주의적 자유주의 신학이 활기를 띠고 하나님 중심인 성경 무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대속 구속, 그리고 몸의 부활과 기적, 재림을 믿고 사도들의 신앙고백을 따르는 정통신학, 보수신학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있다. 교회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전통신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으로 필자는 어거스틴과 칼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들의 신앙과 신학사상이 미친 영향은 여러 세기 동안 계속되고 있다.

서양의 현대신학이 경험과학의 방법론을 채택한 것은 대단히 잘못 된 것이다. Kant로부터 근자의 Moltmann, Pannenberg, Harvey Cox에 이르기까지의 신학자들의 신학방법은 성경과 역사적 기독교가 가르치는 기독교 진리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가장 옳다고 확신하는 진리개념을 가지고 성경과 기독교를 재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왔던 것이다. 이에 반하여 필자는 어거스틴과 칼빈의 신학적 방법이 보다 성경에 부합된 것으로서 그들의 신학적 인간이해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Augustine의 풍부한 여러 갈래의 사상은 그의 신학 방법론에서 그

비결을 알 수 있다.<sup>1)</sup> 즉 신앙은 찾고 지성은 발견한다”(fides quaerit, intellectus invenit)는 원리이다. 그는 진리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믿고 있다. 하나는 신앙에 의한 길, 또 하나는 이성에 의한 길이다. 그래서 “알기 위해 믿는다.” (credo ut intelligam)는 말은 어거스틴의 유명한 명제로 되었다.

칼빈은 자기의 신학 그 자체 속에서 의미를 찾게 하는 것이 아니고 1) 자기신학 밖에 있는 성경 속에서 복음을 찾고, 2)그 복음을 죄인에게 전하여 구원하는 사역을 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다시 말해서 서양신학은 하나같이 monistic system을 만들어 냄으로서 하나님의 reality와 그의 경륜세계와는 무관한 비과학적 신학을 만들어 내는데 분망하나, 칼빈은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을 가르침으로서 참으로 과학적 신학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칼빈은 자기신학보다 성경이 더 중요하고 성경 속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더 중시하였으며,(Inst. III, 2:7) 오히려 그보다도 더 “죄인 구원”에 전체의 목적을 두고 있다.<sup>2)</sup>

“과학적인 신학방법”을 한 어거스틴과 칼빈의 인간론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현대의 휴머니즘에 도전 받고 있는 신학적 인간이해의 새로운 정립을 모색해 보고 구원의 과정 속에서 도출되는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어거스틴이 칼빈에게 미친 영향과 발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한철하, 「고대기독교 사상」 (대한 기독교서회, 1993), p. 253

2) 한철하, 「칼빈의 과학적 신학방법」 (한국칼빈학회 정례발표회, 1999), pp. 1-11.



어거스틴과 칼빈의 인간관의 전 사상의 흐름에 있어서 추구된 것은 절대자 하나님이었으나, 이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우선시되는 관심의 대상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에서 인간을 해석하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였다.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이기에 인간의 본성을 다룰 때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을 고려하고 있다.<sup>3)</sup>

오늘날 현대신학자들은 창세기에 나타난 타락의 역사를 과소 평가하거나 하나의 설화로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어거스틴과 칼빈은 인간의 교만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고,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 태도를 의미하는 만큼 그 상실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4세기말과 5세기초에 활약했던 영국 출신의 금욕적 수도사이며 신학자인 펠라기우스(Pelagius)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여 죄를 자기 결단의 개인 행위로 보고 원죄론을 반대하는 펠라기우스설을 제창한다. 그러나 바울(Paul)과 어거스틴(Augustine)그리고 칼빈(Calvin)은 인간의 원죄(Original Sin)를 신학 사상으로 보고 신앙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에서 창조하실 때 영혼을 인간에게 수여해 주셨으므로 비존재에서 존재로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

3) T.H.L. 파커,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p. 91.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육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몸이 아니라 영혼에 있어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이다.<sup>4)</sup>

어거스틴은 인간의 단순한 의지적 행위 위에 선택 능력을 덧붙여서 자유의지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러므로 아담은 아무 것에 의해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에 의해서도 억제를 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liberum arbitrium*)를 수여 받았다. 아담은 창조의 은총이 상실될 때 자유의지를 상실하여 노예의지로 전락되었다고 하였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 속에는 원죄로 인하여 실존적인 삶 속에서 의지의 분열을 경험하게 되었다.

어거스틴은 비참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희망적 인간이 되는 것을 보았다. 인간이 소유한 능력으로는 결코 새로워질 수 없다고 보았으며, 오직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의지로서 나타난 은총만으로 가능하다.

어거스틴의 은총론은 그의 사상적 체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을 통해서 은총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어거스틴은 인본주의적인 인간론에 대항하여 인간의 참 자유는 인간 속에 들어 있지 않고 은총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칼빈은 인간론을 기독교 강요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I.15장에서는

---

4) 성 아우구스티누스, 「하나님의 도성」 김종흡 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p. XII 23.

본래 창조된 인간, II.1-4장에서는 타락후의 인간에 대해 논하였다. 인간은 전적타락으로 인하여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인간 속에서 인간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로부터 자기 인식의 토대가 출발되지 않으면 안된다.<sup>5)</sup>

칼빈 신학에 있어서 인간을 인식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 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음을 못박는다. 칼빈은 그리스도를 제2의 아담으로 보는 바울의 사상을 지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칼빈 신학에 있어서의 인간관의 위치와 중요성이 두드러지게 부각되어지는 것이다. 그는 인간을 타락이전의 상태와 타락이후의 상태로 구분하는데, 타락이후의 인간은 전적타락으로 영혼이 죽어서 비참한 상태를 말한다.

칼빈은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을 받고, 회복된 인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로서 설명한다. 파괴되고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옮겨지는 길은 인간회복의 원형이고 유일한 기관인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으로서, 이제 이것이 이루어져서 회복된 상태 하에서의 인간상을 신생, 칭의, 성화, 영화로서 칼빈은 인간회복을 말한다.

칼빈의 인간에 관한 사상이 그의 저술 전체 속에서 다양하게 펼쳐 있다 할지라도 그의 인간론의 구조나 내용, 성격 등은 내면적으로 연관성을 가져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질서 속에 묶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창조와

---

5) *Inst.*, I. 1. 1-2.

타락 그리고 구속이라는 관점이다. 이는 흔히 ‘구속사’라고 부르는 신학의 전통적 관점과 같은 범주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B. 연구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인간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거스틴과 칼빈의 인간론을 그들의 주저들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 하는 것이다. 어거스틴의 인간의 창조, 은총이 상실된 인간, 은총아래 있는 인간을 연구하고 각 항목을 칼빈과 비교하여 설명한다.

따라서 연구방법이 두 사람의 견해를 비교하면서 인간론의 문제를 명백히 정립하려는 것이므로 이들의 대표작인 “은총론과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살펴게 된다. 이외에도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과 고백론 등 연구가들의 저서, 그리고 칼빈의 신학에 관한 주석과 칼빈 연구가들의 저서와 논문들도 참고한다.

연구의 범위는 인간론 가운데서 인간의 창조, 타락한 인간, 그리고 회복된 인간을 중심으로 한다.

제1장 서론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어거스틴의 인간론을 개괄적으로 다루어서 그의 인간론을 파악하고, 인간과 은총 사상과 연결 지어 인간론과 죄론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칼빈의 인간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타락이전의 인간상태가 어떠한가를 하나님과 또한 창조세계의 관련성 안에서 논의 하여보고, 타락한 인간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그 본성에 주어진 결과의

측면에서 논의하며, 구원을 받고 회복한 인간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를 구원의 과정과 그 이후의 영화 될 인간의 영광의 측면에서 다루어 보았다.

제4장에서는 인간론의 중요성과 인간의 본질적 성격을 명확히 하며 역사적으로 나타난 어거스틴의 논쟁을 칼빈은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알아본다. 또한 어거스틴과 칼빈의 인간론을 비교하여 그들의 차이점과 일치점을 알아보려고 한다.

## II . Aurelius Augustine의 인간론.

### A. 배경 : 생애와 사상.

어거스틴은 그리스도 교회의 신학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중 하나이며, 복음주의적인 프로테스탄트에 있어서도 주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으로 그의 신학사상을 간단히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아우렐리우스 어거스틴(Aurelius Agustine)은 연방 총독이 관할하는 누미디아(Numidte)의 작은 자치시인 타게스트(Tagaste)에서<sup>6)</sup> 서기 354년 11월 13일에 기독교계와 비기독교계가 혼합된 가문에서 태어났다.<sup>7)</sup> 그의 아버지 파트리시우스(Patricius)는 시의원이었는데, 성질이 사납고 방종한 습관이 있었으며 거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교도로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성자다운 여인으로서 그의 온순하고 인내성이 있는 성격, 그리고 열성 있고 경건한 기도는 결국 그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믿게 하였다. 샤프는 말하기를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Monica)는 교회를 장식한 가장 고상하고 경건한 여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였다. 어거스틴이 「고백론」에서 기억하는 것은 내면적 생활에 관한 부분이며, 그리고 이 내면적 생활도 한 사람, 즉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독점하였다.

6) Peter Brown, 「Augustine of Hippo」 차종순 역,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2), p. 22. 타가스테 (Thagaste: 오늘날 지명으로는 알제리아 (Algeria)의 수크 아리스(Sock Ahras)이다.)는 이미 300년 이상이나 존속해 온 오래된 마을이었다. 이 마을은 북아프리카 전역에 흩어져 있던 로마인들의 터무니 없는 자만심으로 넘쳐 있던 여러 핵심 공동체 가운데 하나였으며, 스스로를 타가스테의 “가장 찬란한” 회의라고 불렀다.

7) 벤자민B. 윌필드 저, 「칼빈, 루터, 어거스틴」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 (기독교문화협회, 1986), p. 259.

어거스틴은 어린 시절부터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을 품었고, 19세에 키케로(Cicero)의 ‘호르텐시우스(Hortensius)’를 읽고 감동하여 그이후의 생을 진리 추구에만 바치게 되었으며 수사학자 (웅변가)가 되기 위한 교육 받았다. 그는 처음에 타게스트(Tagaste)에서 지냈고, 그 이후로는 그의 인생의 위기의 시기가 다가올 때까지(386년) 계속하여 칼타고(Carthage), 로마(Rome), 밀라노(Milan)에서 살았다. 청년 시절 초기에 그는 기독교 교육에서 이탈하여 당시의 이성주의자들이 많았던 마니교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373년), 이어서 일반적인 회의주의 무리들 가운데도 빠졌으나(383년), 386년 늦은 여름에 밀라노에서 카톨릭으로 전향하기 전에(신플라톤 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미 그는 그런 이성주의와 회의주의로부터 벗어났다.<sup>8)</sup>

어거스틴은 그의 개종 당시 두 가지 진리에 복종하였다. 하나는 그가 수년동안 크게 확신을 가지고 배워온 플라톤주의 철학의 진리와, 교회가 전통적으로 전해준 교회의 신앙이었다. 그러나 이후로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전하여 준 교회의 신앙에 완전히 복종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교회 신앙의 개혁자로 나선 것은 아니다. 그는 신앙을 귀중히 보고 그것을 그대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출발하였으며, 신플라톤주의의 철학적 진리와 조화시키기를 도모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권위와 이성의 이중적인 힘’에 의하여 배워 가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 사실로 알고 출발하였던 것이다.<sup>9)</sup>

통상 역사가들은 어거스틴을 ‘은총의 교사’(Doctor Gratiae)라고 부르는데, 어거스틴이 설명한 ‘은총’은 모든 신학과 구별짓는 특징이며,

8) E. S. 모이어, 「인물중심의 교회사」 (대한 기독교서회, 1994), p. 128.

9)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 (대한기독교서회, 1993), pp. 262-263.

이것은 동방의 형이상학적 범주에 속하는 신학과는 다른 새로운 신학을 이룩하였다. 물론 어거스틴의 은총신학이 전혀 독창적인 것으로서 홀로 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이것은 강하게 체험되고 뚜렷한 교리로서 형성되게 된다. 어거스틴의 은총론은 그의 초기 신학에는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395-6년에 쓴 ‘심폴리카아누스의 질문’에서 비로소 표면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앞서 본대로 ‘하나님의 은총의 손’은 어거스틴의 생을 그 시초부터 지도해 왔으며, 은총으로 그는 신앙에 들어왔고 그 ‘은총’을 지키기 위하여 후반생을 바친다. 어거스틴의 은총론은 먼저 그의 ‘참회록’으로 표현되었으며, 다음에 그의 펠라기우스 논쟁을 통하여 ‘어거스틴주의’로서 발전하게 되었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카톨릭주의와 맞서는 복음주의는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 복음주의는 후에 개혁자들에 의해 다시 살아나게 된다.<sup>10)</sup>

어거스틴은 이와 같이 풍부한 여러가지 사상을 어떻게 지닐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신학적 방법론에 그 비결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신앙은 찾고 지성은 발견한다”(fides quaerit, intellectus invenit)는 원리이다. 그의 신학방법은 권위와 이성(Authority and Reason)이라는 이중적인 힘에 의하여 진리를 세워 나갔다. 그는 진리에는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믿고 있다. 하나는 신앙에 의한 길이며, 또 하나는 이성에 의한 길로서 이 양자의 진리는 결코 모순되지 않고 조화롭게 발전해 나간다고 보았다. 그는 신앙으로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송두리째 받기에 힘썼고,

---

10) *Ibid.*, B. p. 255.



개혁자로 등장하지 않았으며 전통을 수호하기 위하여 나섰으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의 지성은 신앙을 더 깊이 알아 갔다. 그리하여 고전의 모든 지적 유산이 그에게 흘러 들어갔으며, 그는 이 모든 것을 서서히 소화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독교 철학의 체계를 이룩하였 것이다. 즉 우리는 어거스틴에게서 터툴리안과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종합된 것을 볼 수 있다. 클레멘트는 알렉산드리아의 지성인들을 얻기 위하여 헬라 철학이 기독교 진리와는 아무 다를 것이 없음을 말하였다. 즉 ‘동일한 로고스가 혹은 모세에게 혹은 소크라테스에게’라는 것은 그의 사상적 원리였다. 그러나 터툴리안은 이에 반발하여 헬라 철학이 우리의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철학 사상을 기독교 속에 도입하여 들이는 것은 마귀의 역사에 속하며 모든 이단의 근원이라고 말하였다. 어거스틴은 이 양극단의 태도를 지양하였다. 즉 다시 말해서 텔리히의 ‘연결의 방법’(method of correlation)으로 시작하였으나 신앙에 입각한 비판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리는 어거스틴의 과학적 방법을 비판적 종합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함으로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고대 문명은 기독교의 것으로 변형되어 소화했던 것이다.<sup>11)</sup>

바울 사도와 개혁자 루터와의 사이에 기독교가 낳은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블리우는 어거스틴의 생애를 이처럼 단순하게 간추려 보았다.

## **B. Augustine의 은총론적 인간론.**

---

11) *Ibid.*, p. 253.

어거스틴(Aurelius Augustinus)의 은총론은 인간론의 체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을 통해서 그의 은총사상은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펠라기우스는 장차 나타날 인본주의적 기독교에 대한 예표였다. 그는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죄의 불행을 약화시켰고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거의 포기해 버렸다 그리고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은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있다고 하였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펠라기우스를 신중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자유의지에 대하여 반발하였다. 어거스틴은 참 자유가 인간 속에 들어 있지 않고 은총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자유를 은총 안에서의 자유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본연의 자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확신하였다.

하나님은 은총을 인간에게 거저 주신다. 은총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적 표현이다. 인간은 은총을 받을 때 의지가 변화되고 새롭게 변화된 본성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며, 인간의 참된 평화와 안식은 회복된 본성을 소유한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와 같은 어거스틴의 사상은 성경을 토대로 한 체험적 신앙속에서 형성된 것이며 각 장별로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 1. 인간의 창조

### 1) 무로부터 창조된 인간

어거스틴에게 있어 창조, 타락, 성육신, 구속, 부활, 심판 등의 성경적 사건은 역사상에 나타난 엄연한 사실들이다. 자신이 고백록 3권에서 고백했

던 것처럼, 한때는 성경이 유치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고 말았다. 그는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이사야 7장 9절의 말씀을 70인역(LXX)에서 “믿지 않으면 결코 깨달을 수 없다”라고 읽은 후에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깨달음과 확실한 앎이 오게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알기 위해 믿는다. (credo ut intelligam)”는 말을 어거스틴의 유명한 명제로 되었다.<sup>12)</sup>

그는 성경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문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 문을 통과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었고, 수많은 사색들이 성경적 토대 위에 서게 되었다.

칼 야스퍼스(Karl Jaspers)는 성경적 근거 위에 서 있는 어거스틴의 사상에 대하여 “성경이 본질적인 진리의 유일한 근원이라는 기본적인 믿음은 사유를 변모시킨다”라고 하였다.<sup>13)</sup> 성경의 진리는 어거스틴의 일생을 전환시켜 버렸다. 그래서 마니교, 신플라톤주의, 회의주의 등의 각종 사상을 섭렵했었지만 최종적으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그 자체뿐이었다.

어거스틴은 이와 같은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었다. 어거스틴에게는 창조가 불변의 진리이며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속해 있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12) 벵크 헤그룬트, 「신학사」 박희석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9), p. 160.

13) 칼 야스퍼스, 「어거스틴의 생애와 사상」 김쾌상 역, (서울: 전광사, 1981), p. 34.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창조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누가(who)라는 질문에는 하나님, 어떻게 (how)라는 질문에는 있으라 (let it be)는 말씀으로, 왜 (why)라는 질문에는 좋았기 때문에 (it was good)”라고 창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sup>14)</sup>

어거스틴은 하나님 이외에는 창조자가 없으며 그의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성경 내용대로 신뢰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스스로의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님 자신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선하신 하나님 (good God)은 모든 만물을 선(good)하게 창조하셨다.<sup>15)</sup>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선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창조 방법에 있어서 어거스틴은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를 강조하였다.<sup>16)</sup> 구약성경에서 가르치는 “무에서의 창조개념”을 도입한 것은 성경이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상이 터툴리안을 비롯한 교부들에게서 나타나기도 했지만 어거스틴에게 와서 더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러셀은 희랍철학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무에서의 창조 개념을, 어거스틴이 사용한 것은 그의 독창적인 능력 때문이었다고 평가를 한다.<sup>17)</sup>

14) *City of God*, XI. 21.

15) *Ibid.*

16) *on the Soul and its Origin*, I, 4.

17) 버트란드 러셀, 「서양철학사」 한철하 역, (서울: 대한교과서, 1984), p. 493.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철학자들은, 근원적 물질을 이용하여 신이 형상을 주었다는 물질적 창조를 주장함에 비하여, 어거스틴은 물질까지도 창조한 것을 주장한다.

그들은 당신에 의하여 무에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며 당신이 아닌 어떤 물질로부터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18)

어거스틴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에서부터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사실은 성경의 증거가 플라톤주의나 신플라톤주의와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표현한 것이다. “당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은 신플라톤주의의 창시자인 플로티누스(Plotinus)가 일자(一者, the one)에서 모든 사물이 유출된다는 유출설을 주장한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발언이다. 그리고 “어떤 물질로부터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은 플라톤이 이데아를 품고 있는 신에 의해 세계가 형성될 때 질료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실에 반대하는 것이다.<sup>19)</sup> 이처럼 어거스틴이 무에서의 창조 사실을 믿었던 까닭은 성경이 다른 철학보다도 월등한 창조론을 증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인간도 역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때문에 인간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 즉 영혼이 부여됨으로써 진정한 인간이 되는 장면을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영혼을 아담에게 이식(implanting) 하였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실제적인

---

18) *Confessions, XIII. 33.*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절대 무로부터 세계를 형성하였다고 한다. 무형의 물질창조와 형상창조는 시간적 차이가 없으며 단지 논리적으로 전자가 선행할 뿐이다.

19) 선한용, 「시간과 영원」 (서울: 성광문화사, 1987), p. 34. f. 선한용은 플로티누스의 유출설을 일원론, 플라톤의 형성설을 이원론으로 설명한다.

숨을 쉬며(actual breath), 인간의 영혼이 되도록 만드셨던지” 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sup>20)</sup>

첫 사람 아담은 “본래적 의”를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의 의지는 선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에다가 덕을 향한 안정된 성향을 부여하셨기 때문이다.<sup>21)</sup> 그의 육적인 욕구는 의지에 종속되고 신적인 은혜에 힘입어 자기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았다.

## 2) 인간의 위치

이 부분에서는 아담이 소유하고 있던 은총을 통하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적 위치를 설명하고자 한다. 어거스틴은 아담에게 주어진 은총을 충분한 은총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인간본성을 가능상태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는 은총이었다.

첫사람 아담은 선을 행할 수 있었다. 물론 그 반대로 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 자유의지 즉 의지의 자유로운 선택기능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의 은총의 개념을 살펴볼 때 아담이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의지는 중간적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는 중간선(intermediate good)으로서 본래는 선하지만, 그 효과는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20) *City of God*, XII. 23. 본논문의 원죄부분 참조.

21) 성 아우구스티누스, 「하나님의 도성」 조호연 옮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p. 25.

그러므로 아담이 지닌 의지의 능력은 선악간의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질 경향이 있을 수 없다.

영혼의 기능을 어거스틴은 삼위일체의 한 흔적으로서 기억, 이성, 의지(memory, understanding or intelligence, and will)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sup>22)</sup>

이 형상은 인간 영혼 속에 자리잡고 있는 연결고리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교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창조된 후, 은총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근거인 동시에 타락한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망하게 하는 희망의 근거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은 무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존재임으로 이러한 사실은 존재양식에 관한 문제였다. 여기에 비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존재근거의 문제이다.

의지는 사랑하는 상태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 의지를 결정짓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망이며 영혼을 움직이게 하는 의지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다.<sup>23)</sup> 이와 같이 의지와 사랑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데 이는 사랑이 영혼의 중심인 의지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다. 아담의 초기 상태는 선을 택할 수 있는 의지적인 능력이

22) 김종흡, 「삼위일체론」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pp. 292-293.

23) 칼 야스퍼스, 「어거스틴의 생애와 사상」 김쾌상 역, (서울: 전광사, 1981), p. 76.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닌 까닭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담의 본성은 또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아담은 자신의 갖고 있는 영혼의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사랑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수여해주신 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위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하나님만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는 특권을 의미한다.<sup>24)</sup>

### 3)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따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6,27절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무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혼을 수여해 주셨으므로 인간이 비존재에서 존재로 되었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육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은 몸이 아니라 영혼에 있어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이다.

---

24) *City of God, X X II. 1.* 이 논문에서는 형상(*zelem*)과 모양(*demuth*)에 대한 논증을 하지 않겠다. 히브리 사람들은 관용적으로 반복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가 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지만 다만 그 원형의 형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한다.<sup>25)</sup>

만약에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과 똑같이 창조하셨다면 영혼 없는 몸만 지닌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물과 다르게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다.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체할 수 있도록 당신의 모습(His own image) 그대로 만드신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었다. 그러므로 땅속이나 바다나 하늘에 있는 다른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보다, 이성과 지성(reason intelligence)에 있어서 인간을 월등하게 만드신 것이다.<sup>26)</sup> 인간의 육체는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거함으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sup>27)</sup>

그러면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은 무엇인가? 영혼은 지성과 의지와 기억(intelligence or understanding, will, memory)을 갖고 있다. 어거스틴은 이 세 영역이 한 실체(one substance), 한 마음(one mind), 한 생명 (one life)을 구성하면서, 서로 존경하며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았다. 즉 기억과 이해력(또는 지성)과 의지에서 우리는 능력과 지식과 이용(利用)을 보아야 한다. 기억과 이해력과 의지는

---

25) *City of God*, XII. 23.

26) 「고백록」, XIII. 2.

27) *City of God*, XII. 23.

본질적으로는 하나이며 상대적 관계적으로는 셋이다. 어거스틴은 이것이 삼위일체의 한 형상으로 반영한다고 보았는데, 기억을 영혼의 기능으로 보는 어거스틴의 이러한 사상은 그의 독특한 사상중 하나이다.<sup>28)</sup>

찾고자 하는 것이 생각났을 때 ‘아!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물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억력이 없으면 사물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sup>29)</sup>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지성과 의지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28) 어거스틴 신학체계를 거의 따르고 있는 칼빈은 “하나님의 영혼이 인간 의형에서 빛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형상의 본래 좌소가 영혼에 자리 잡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존 칼빈, 「기독교 강해」 한철하 외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I. x v. 3.

29) 기억과 이해력과 의지라는 이 삼일 현상은 삼위일체의 유사현상으로서 제9권에 있는 마음과 지식과 사랑보다 우수하다. 기억과 이해력과 의지에는 동등한 실체성이 있으나 마음과 지식과 사랑에는 그것이 없다. 전자는 이 세 기능이며, 그 하나 하나에 마음 또는 정신전체가 있다. 기억은 기억하는 마음 전체이며, 이해력은 인식하는 마음이며, 의지는 결정하는 마음 전체다. 마음의 한 본질이 세 형태의 하나 하나에 있으며, 이 형태들은 각각 서로 다르다. 그러나 세 본질이나 세 마음이 아니다. 마음과 지식과 사랑이라는 삼일현상에서는 지식과 사랑과 마음의 개개의 행동이고 기능이 아니다. 어떤 인식 행동 하나는 인식의 일반적 형태에 있는 전체 마음이 아니다. 이런 것은 마음의 기능이다. 사랑한다는 한 행동은 사랑이라는 또한 의욕이라는 일반적 형태에 있는 전체적 마음이 아니다. 이런 것이라면 그 순간적, 일시적 행동은 영구한 기능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미(9.2.2) 각주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삼일 현상에서는 마음만이 한 실체이므로, 삼일현상에서는 결함이 있다. 기억과 이해력과 의지라는 삼일현상은 동등한 실체성이라는 견지에서는 삼위일체의 유사현상으로서 적합하다. 그러나 삼위일체 내의 서로 다른 의식을 고려할 때에는 불완전하다. 기억과 이해력과 의지라는 세 기능은 서로 객관적으로 있어서 의식의 세 형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서로 대명사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 돌리는 것과 같은 각 위격만의 행동을 인정할 수도 없다. 그 뿐 아니라, 마음의 기능은 이 세 가지뿐이 아닌 점에서도 이 삼일 현상은 결점이 있다. 예컨대, 상상력과 마음의 한 기능이다. 이 상상력에도 마음의 본질이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삼위일체론」 김종흡 옮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X, xii.

특히 의지의 문제는 그의 모든 은총론, 인간론, 죄론 등을 구성하는 결정적인 문제이다. 그가 의지를 중요시한 까닭은 사랑의 욕구 즉 재결합의 욕구를 지니고 있는 의지가 영혼의 다른 기능 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sup>30)</sup> 인간이 보이지 않는 예지의 세계를 숙고하며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지성 때문이다. 삼위일체론의 다음 부분은 지성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중요성을 설명해 준다.

인간의 이성적이며 지적인 영혼, 즉 인간의 영혼속에서 영혼의 불멸성 가운데 깊이 존재하고 계신 영원한 창조주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 비록 이성이나 지성이 때로는 영혼속에서 잠자거나 혹은 크거나 작게 보일지라도, 인간의 영혼은 이성적이며 지성적인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sup>31)</sup>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도록 위임하셨고, 이때 이미 인간에게 지성의 능력을 수여해 주셨다.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지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성은 발견하려고 노력하며 알기 위해 노력한다. 인간은 지식을 쌓고 지혜를 인식하면서 세상 지식도 발견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야만 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영혼의 기능으로 주시면서, 동시에 지적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의 지적 기능은 탁월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단순한 의지적 행위 위에 선택 능력을 덧붙여서

---

30) 「고백록」, X. 19.

31) I. C. 헤넬 편, 「폴 틸리히의 그리스도교 사상사」 송기득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p. 165. 틸리히는 主知主義와 主意主義 사이에 대논쟁이 중세시대에 일어났다고 설명한다.

자유의지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러므로 아담은 아무 것에 의해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에 의해서도 억제를 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liberum arbitrium*)를 수여받았다.<sup>32)</sup>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지만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는 관여하지 않으신 것이다.

## 2. 은총이 상실된 인간.

### 1) 죽음에 처하게 된 인간

어거스틴은 아담의 타락을 통하여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 죽음 속에는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아담이 경험한 것이며 후손들에게도 넘겨진 것이었다. 원래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총속에서 순종할 때 인간의 불멸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어거스틴은 아담이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의 상태에서, 완전히 죽지 않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인간이 계속 순종했다면 거룩한 천사들처럼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별콧도 어거스틴의 견해에 대하여 “인간은 불멸로 창조되었는데, 이것은 인간이 죽음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육체적인 불멸성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만일 인간이 순종하였다면 그는 영원히 거룩함을 입었을 것” 이라고 설명한다. 인간이 자유와 영원을 가진 존재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

32) *on the Trinity, X IV. 4.*

것은, 만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는 단서가 붙은 조건적 삶 때문이었으나 이제는 필연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전락되었고, 이는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들도 죄의 결과인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인간은 살려고 하는 강한 욕구를 갖게 될지라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도 아담은 즉시 죽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어거스틴은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으로 구분하였으며,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은 상실되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게 되었다. 하나님이 동물보다 우월하게 창조하시고, 특별한 관계를 설정하였던 인간이었지만 그 특권은 상실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인 죽음을 맛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영적 죽음을 중시하였으며 모든 죽음이 여기에서 유발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하나님이 “너는 정녕 죽으리라(ye shall die the death)” 고 말씀하시며 “죽음들(deaths)” 이라고 하지 않으셨으므로, 우리는 그 죽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버림받을 때 일어난 것이라고 이해해야 된다. 그분은 영혼의 생명임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고(인간이) 그분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분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이 버려진 것이다. ... 우리는 “그날에 네가 불순종으로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공평하게 버릴 것이다”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이 죽음 속에서 확실히 다른 죽음들도 압박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 영혼 그 자체가 나이에 따라서 부패되고 손상된

육체를 버릴 때 다른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 이 두 죽음 중에서 첫 번째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규정되어져 있다. 그리고 은총에 의하여 인간이 자유를 얻지 못하면, 이 첫 번째 죽음은 반드시 두 번째 죽음을 수행하게 된다.<sup>33)</sup>

이같은 실제적인 영적 죽음을 아담은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들에게도 규정되어져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하고는 결코 두 번째의 죽음인 육체적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후의 첫 사람에게 “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다. 그분이 흠이라고 말한 것은 영혼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그의 몸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흠에서 몸을 부여받아 자연적인 몸을 지니고 있지만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는 영적인 몸으로 바뀌어지고 썩지 않는 상태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것은 신자와 성도들에게 죽음의 위협이 없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다.

아담이 만약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의 몸은 박탈당하지 않았을 것이며, 불멸과 부패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는 “사망이 생명에 의하여 삼켜진 것” 이다. 즉 그는 자연적 몸(natural body)에서 영적인 몸(spiritual body)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이처럼 어거스틴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담이 영육간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에덴동산에서 계속 살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즐겼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곧 거룩한 천사들처럼 살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담의 죄는 이러한 가능성의 결과에서 벗어나 필경에는 육체적인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

33) 루이스 벌콕, 「기독교 교리사」 신복운 역, (서울: 성광 문화사, 1987), p. 154.

어거스틴은 영적 죽음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발생했던 것처럼,  
육체적 죽음은 육체가

영혼에게 반항할 때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이라고 보았다. 인간의 영혼은 참 지배자이신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죽게 되며, 하나님이 없는 영혼은 몸에 대한 지배권을 또한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흠 없이 온전한 본성 상태를 유지했던 인간은 죄로 인해 그러한 본성의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본성이란 필연적으로 영혼과 육체의 분리인 육체적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

우리의 첫 조상들이 명령을 어기자마자 하나님의 은총은 그들을 저버렸고,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 때문에 뒤죽박죽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산란한 마음속에서 일어난 첫 번째 행위였을 것이다.) 그들의 수치스러움을 가렸다. 그들은 육체의 새로운 경향을 당하게 되었다. 즉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의 보응으로서 육체적 새 경향은 그들에게 불복종하게 되었다. 자신의 자유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비웃었던 영혼은 육체에 대하여 통제하는 것을 빼앗겼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최고의 주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자신이 내적 종에 대한 지배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다. 즉 영혼이 하나님께 복종할 때처럼 육체를 복종케 할 수 없는 것이다.<sup>34)</sup>

영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죄의 별이었다.

---

34) *City of God*, XIII. 15.

어느 기독교인들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모두 죽었다. 영혼은 죄 때문에 그리고 육체는 죄의 별 때문이며, 동시에 죄 때문이다. 영혼의 죽음은 불경건(ungodliness)이며, 육체의 죽음은 부패(corruptibility)임으로 영혼은 몸으로부터 분리되었다. 하나님이 영혼을 저버렸을 때 영혼이 죽는 것처럼 영혼이 육체를 떠났을 때 육체는 죽게 된다. 그러므로 전자(영혼)는 어리석게 되고(foolish), 후자(육체)는 생명이 없게 된다.(lifeless)<sup>35)</sup>

어거스틴의 견해는 펠라기우스의 견해와 상반된다. 펠라기우스는 죽음이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생리적 현상이라고 하였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을지라도 생래적으로 죽을 운명속에서 이미 태어났다는 것이다. 아담의 생래적 구조는 범법행위와 관계가 없으므로 아담에게 소급할 수 있는 죽음은 영혼이 아니라 육체가 죽음뿐이었다고 펠라기우스는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서 그의 제자 줄리안은 영적인 죽음이 비록 아담으로부터 후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할지라도, 육체적 죽음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조식이 지니고 있는 필연성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sup>36)</sup>

이러한 주장에 반하여 어거스틴은 인간의 죽음이 죄의 형벌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렇게하여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원죄를 형성하였고, 죄의 유전성은 모든 사람을 죽음에 빠지도록 만들었다는 그의 사상이 확립되었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어거스틴은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을 죽음과 연계시켜 말함으로써,

---

35) *City of God*, XIII. 13.

36) *On the Trinity*, IV. 3.



본연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기독교인들, 즉 승화된 인간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에게는 죄의 결과로서 죽음을 맞게 되는 불행한 인간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본성이 회복됨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인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하나님의 은총은 죄의 결과인 죽음을 초극함으로써,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 2) 원죄 속에 있는 인간

### (1) 유전을 통한 원죄

어거스틴은 인류가 죄 속에 빠져서 죽게된 이유는, 원죄(peccatum originale)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원죄를 부인하며 아담의 본성 상태처럼 인간이 태어난다고 주장하는 펠라기우스 사상과 반대되는 것이다.

어거스틴의 원죄사상은 유전에 따른 죄의 전가와 연대적인 책임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유전되는 원죄 부분을 살펴보고, 그 후에 연대적인 책임을 살펴보려고 한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삶이 성경에 서 보여주는 원죄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시편 51편을 비롯하여 창세기, 욥기, 에베소서 2장 3절, 로마서 5장 12절,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원죄의 원리를 발견하였다. 다음과 같은 고백은 시편 51편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거스틴은 자기 자신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친이 잉태했을 때부터 원죄를 물려받은 것으로 기록하였다.

저는 죄 가운데 형체를 이루었으며, 저의 어머니는 죄 가운데서 저를 잉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시여, 저의 어느 곳에 깨끗한 구석이 있사오며 제가 언제 한번인들 순진해 본적이 있습니까?<sup>37)</sup>

아담은 영혼의 타락을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었다. 후손들의 삶 속에 남겨 놓은 홀로 벗을 수 없는 원죄라고 하는 무거운 죄짐이 바로 그것이다. 원죄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아담의 후손들은 날 때부터 부패 덩어리(massa preditionis) 일 수 밖에 없다.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하면서 원죄와 그 결과인 사망의 모습을 연결지어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sup>38)</sup> 어거스틴은 아담의 범죄가 영혼의 계속적인 유전이라고 하는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후손에게 전해짐으로, 유아들까지도 원죄 속에 있다고 보았다. 원죄는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펠라기우스가 어린 아이들은 죄성이 없는 아담의 본성과 같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대된다. 어거스틴은 “아직 어떠한 죄를 범하기 이전의 어린 아이일지라도 죄된 육체의 참여자이며, 그것을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원죄에 대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근본적인 견해차를 볼 수 있다. 펠라기우스도 어거스틴처럼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

37) 니이브, 「기독교 교리사」 서남동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p. 227.

38) 「고백록」, I. 7.

악한 영향은, 아담에게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죄의 유전을 일으키는 원동자로 아담을 보았던 것에 비하여, 펠라기우스는 사람들로부터 모방되는 하나의 악한 예증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모방에 의하여 죄가 형성된다고 하는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어거스틴은 반대한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말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보라. 이 구절이 유전(propagation)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방(imitation)에 의한 것을 의미한다면, 왜 그들 자신의 죄들(their own sins) 때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 사람의 죄(sin of one) 때문이라고 하였겠는가?<sup>39)</sup>

죄는 아담을 통해서 생육하는 모든 후손들에게 넘겨진 원죄 때문에 이루어졌다.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죄성을 볼 때, 원죄가 유전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어거스틴은 로마서 5장 12절을 풀이하면서, 죄는 유전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원죄는 실제적인 죄이기 때문이다.

## (2) 원죄 유전의 원인

어거스틴은 원죄를 유전시키는 것이 욕망(concupiscence)이라고 보았는데, 이 욕망 속에는 영혼의 그릇된 생각과 성적(sex)인 영역에서 크게 작용하는 성욕이 들어있다<sup>40)</sup>고 하였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많은 글을

---

39) 롬 5:12.

40) *On Forgiveness of Sins, and Baptism, I.* 15.

통해서 욕망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였는데, 이것을 단순히 성욕의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켈리는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를 해석할 때, 결과적으로 원죄를 성적인 걱정과 동등하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한다.<sup>41)</sup>

켈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로제가 보았던 것처럼, 욕망이란 하나님을 떠나 본래 소멸되어 버릴 물질적 사물에서 만족을 찾고자 하는 온갖 성향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욕망 중에서도 가장 난폭하고 지속적이며, 널리 퍼진 것은 성적 욕구인 성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42)</sup> 이들의 어거스틴의 원죄관에 대한 해석은 원죄가 성욕에 의하여 발생했다고 보지 않는다. 이들의 원죄에 대한 어거스틴 해석은, 욕망이란 단어를 광의로 해석하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로제는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교만(pride)과 욕망 (concupiscence)이 죄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sup>43)</sup>

어거스틴은 결혼을 귀하게 여겼지만, 아무리 올바로 된 결혼일지라도, 어린아이를 수태케 하기 위해서는, 성욕의 열정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열정은 의지의 종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의지를 파괴함으로써, 의지를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하였다.<sup>44)</sup>

---

41) 켈리, p. 412.

42) Bernhard, Lohse, 「A short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p. 114

43) J. N. D 켈리, 「고대기독교 교리사」 김광식 역, (서울: 맥밀란, 1988), p. 4111.

44) Ibid.

이상과 같이 어거스틴은 광의의 욕망과 협의의 욕망을 구분하는데, 협의의 욕망인 성욕은 후손들에게 원죄를 계속 유전시키는 것이고, 광의의 욕망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아담은 원죄를 일으키는 죄의 주범이었다고 말한다.

### (3) 연대성을 통한 원죄

어거스틴은 아담의 교만과 욕망은 타락을 일으켰으며 이로 말미암아 후손들에게 원죄가 유전되는 것을 앞에서 보았다. 어거스틴은 또 한편으로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자이며, 후손들은 아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연대성(solidarity)에 의한 죄의 분담을 강조하였다. 유전에 의한 원죄 전달이 욕망 때문에 후손에게 전해지는 것이라면, 아담이 대표자이므로 죄를 물려받는다는 연대성의 문제는 인류가 지닌 죄의 책임문제를 규명해주는 해답이다.

하나님은 오직 한 명의 남자를 창조하였다. 이것은 확실히 그가 고독하게 되고자, 사회로부터 격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으로써 사회의 일체성과 화합의 결속이, 좀 더 그에게 효과적으로 위임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인류는 본성의 유사성(similarity of nature) 뿐만 아니라, 가족애(family affection)에 의하여 결합된 존재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신 것처럼, 그에게 주신 여자를 창조하지도 않으셨다. 그것은 모든 인류가 한 남자로부터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었다.<sup>45)</sup>

어거스틴의 이러한 주장은 고대 라틴어 성서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

45) *Lohse*. 재인용, p. 112.

어거스틴은 로마서 5장 12절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because all men sinned)”라고 하는 마지막 구절을 because 대신에 ”그 사람 안에서(in whom)”라고 번역된 것을 받아 들였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라틴 번역에 기록된 것을 주석하면서 아담에게만 해당되었던 벌이 전 인류에게 주어지는 까닭은, 하나님의 특별한 벌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sup>46)</sup> 이와 같이 아담과 후손들을 통일적인 연대성의 관계로 본 것은, 아담이 교만해서 타락한 것처럼, 인간도 똑같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해 준다. 그리고 필연적인 육체적 죽음을 당하는 것도 역시 같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을 통해서 은총을 주셨지만, 타락으로 이것을 저버린 결과, 인간 모두는 죄 속에 살게 되고 말았다. 어거스틴은 이처럼 인류에게 넘겨진 죄의 결과에 대한, 심각성을 간파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펠라기우스는 그렇지 못했다. 아담을 개인적인 한 인간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죄 속에서 신음하며, 현재 고통받는 인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까닭이다.

### 3) 노예의지

첫 사람에 의해 타락은 은총의 상실을 가져왔고, 그 결과로써 인간은 죽음과 원죄를 물려받아 비참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비참한 삶의 모습은 아담의 자업자득에 의해 변하고 말았다. 어거스틴과

---

46) *On Marriage and Concupiscence, I. 27.*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 논쟁은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는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존중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였다.

훗날 중세말엽과 종교개혁 시기에 나타난 에라스무스와(Erasmus) 루터(Luther) 사이에서 벌어진 자유의지론(De Libero Arbitrio)과 노예의지론(De Servo Arbitrio)의 대결은 펠라기안 논쟁의 재론이었다. 이 논쟁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복음적인 신앙을 수호하는 정통신앙과 인간의 능력을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 종교 및 철학들과의 투쟁이기도 한다. 어거스틴의 노예의지를 루터와 칼빈이 따르면서, 복음적인 신앙은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인간론을 확립시켰다. 이처럼 어거스틴은 아담의 타락 때문에, 자유의지는 더 이상 자유의지가 아니며, 은총을 받을 경우에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육체를 올바르게 통제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감정과 모든 죄악을 제어하려면, 영혼 속에 있는 이성과 의지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고 보았다.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영혼이 육체를 바르게 통제하지 못하고, 악에 대해서도 이성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sup>47)</sup> 이미 살펴본 것처럼 타락 이전의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이 때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posse non peccare*)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것은 충분한 은총에 의거하여 실현될 수 있었다. 그러나 타락 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non posse non peccare*) 상태로 빠지고

---

47) *City of God*, XII. 21.

말았다.<sup>48)</sup>

펠라기우스는 타락 이후에도 모든 인류가 자유롭게 생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강조한데 반하여, 어거스틴은 모든 인류가 노예의지를 지녔기 때문에 더 이상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보았다. 죄 속에서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들은 자유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아담의 타락시에 들어온 모든 죄 속에서 살며, 스스로 죄짓는 데에만 자유롭게 될 뿐이다. 인간은 실로 죄지을 자유(posse peccare)만 누리게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아담은 더 이상 육체를 자기 의지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창조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되었고, 이후로 전 인류는 무지(ignorance)와 연약함(infirmity)을 통한, 노예의지 상태만을 지닐 수 밖에 없다. 이 두가지는 현재 인류들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가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어거스틴은 무지와 연약이, 아담의 후손들을 더 깊은 죄로 끌고 가는 원인임을 밝혀냈다. 어떤 일이 갖고 있는 선의 확실성에 따라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선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가령 선을 행하려고 할지라도, 노예의지를 지녔기 때문에 제대로 수행 할 수 없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무지와 연약한 의지 때문에,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았다.<sup>49)</sup> 무지와 연약함은 죄의 별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

48) Lohse. 재인용, p. 113

49) 니이브, p. 230.



무지와 연약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의무를 알지 못하게 하며 또한 그가 해야 할 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러나 무지와 연약함은 하나님의 봉인된 형벌의 배치(secret penal arrangement)에 속한 것이며, 그리고 그 분의 헤아릴 수 없는 심판(unfathomable)에 속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부정(iniquity)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으로 아담의 죄에 대한 지식을 얻게된다.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었고, 그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며,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진실하게 선포한다.<sup>50)</sup>

### 3. 은총 아래 있는 인간

#### 1) 은총의 작용

어거스틴은 아담이 창조시 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은총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타락은 은총 속에 거하기를 거부한, 아담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결과였다. 선이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속에서 선을 찾으려 하며, 자신을 너무 의존했던 것이다. 그 이후로 아담을 따라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죄 속에 있는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어거스틴은 인간의 노예화된 의지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의 의지는 갱신되어야 하며,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sup>51)</sup> 이것은 두번째 은총으로, 아담에게 주어졌던

---

50) 켈리, p. 413.

51) *On Forgiveness of Sins, and Baptism, II. 26.*

충분한 은총에 대비한 것이며, 효과적인 은총(grace effective) 이라고 불릴 수 있고, 타락한 인간에게 견인까지 함께 주시는 은총이다.

어거스틴은 주장하기를 첫째 아담에게 주어진 충분한 은총은 견인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한다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둘째 아담을 통해서 견인 자체를 주신다고 보았다. 이 은총은 몇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곤잘레스(Justo L. Gonzalez)의 지적처럼, 어거스틴 자신은 은총론의 체계를 세우지 아니하였지만,<sup>52)</sup> 단계적인 은총에 관한 개념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샤프의 설명을 살펴보자.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총 사역을, 몇 가지 단계로 구별하여 선행적 은총(prevenient grace), 공작적 은총(operative grace) 협력적 은총(cooperative grace)이라고 불렀다. 첫 번째 은총에서 성령은, 죄와 죄책 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시고, 두 번째 은총에서의 성령은 복음을 사용하여, 신앙과 또 의롭게 하며,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낳는다. 그리고 마지막 은총에서, 인간의 성화된 의지는 일생을 통하여 그와 협력한다. 은총사역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전적으로 갱신시키며, 또 죄인을 성도로서 영적으로 변화시킨다.<sup>53)</sup>

뵐콕은 위에서 보는 것처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여기에 비하여 많은 학자들은 선행적 은총과, 협동적 은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sup>54)</sup> 뵐콕이

52) 루이스 뵐콕, pp. 154f.

53)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3: Nicence and post- Nicene christianity Grand Rapids : Eerdmans, 1910), p. 843.

54) 후스토 L. 곤잘레스, 「기독교 사상사」 이형기 역, 전 3권 (서울: 대한 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8), 2:46f.

주장하는 선행적 은총과 공작적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선을 생각하거나 열망하거나, 혹은 의욕하도록 우리 영혼속에서 율법과 복음을 통하여, 선행적으로 작용하심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광의적으로 볼 때, 선행적 은총이라고 할 수 있다. 어거스틴은 이 선행적 은총을 시편 59편 10절에서, ‘그의 자비가 나보다 앞서간다{his mercy goes before me}’ 라고 하는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가신다고 하였다. 우리를 충성스럽게 살도록 하시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며, 그분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도록, 우리보다 먼저 행하신다고 보았다.<sup>55)</sup> 이와 같이 모든 움직임에 있어서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로제는 “하나님의 은총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가 원하도록 앞서신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에게는 헛되이 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뒤따른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택(election)과 동일시될 수 있는, 이 은총을 통하여 인간의 새로운 시작이 마련된다고 보았다.<sup>56)</sup>

우리의 의지 속에 효과적인 힘을 공급하면서 먼저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행 은총을 통하여, 선을 행하거나 계명을 준행 할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은 항상 선행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즐거운 마음으로 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주시기를 항상 기도해야 한다.

협동적 은총은 선행은총에 의하여, 우리의 노예의지가 해방되어 새롭게

---

55) 루이스 뵘콕, p. 155.

56) 켈리나 로제등은 선행적 은총과 협동적 은총으로 구분한다.

갱신되면서 분발한 결과이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제공하시고, 그분의 작용에 의하여, 시작된 성취를 협동에 의해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빌 1:6)”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협동적 은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없이도 우리 의지에 영향을 끼치는 작용을 한다. 우리가 의지를 갖었고, 또한 행하려는 의지를 지녔다면, 그는 우리와 함께 협동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의욕하도록 만드시는 그분의 작용 없이, 결코 우리는 경건의 선행을 수행하는 능력을 갖지 못한다.

선행은총을 수여 받은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서도, 부자유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행하시며 홀로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의지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볼 때,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주권사상과 절대 은총사상에 인간은 완전히 사로 잡혀 있다고 하였다.

협동적 은총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선행은총을 받은 이후로 점진적인 과정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선을 택할 수 있도록 그 의지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협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는 갱신됨으로써 점차적으로 참되고, 완전한 자유, 즉 아담이 지녔던 본성적 자유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선행적 은총과 협동적 은총의 단계를 지니고 있는 효과적인 은총의 성격은, 불가항력적 은총(irresistible grace)이라고 부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보다 앞서서 활동하시고, 이 활동에

의하여 변화된 인간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것으로서 생각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효과적인 은총의 중요한 역할은 사랑의 주입(infusion of love)이다. 인간은 죄 속에 있는 부패 덩어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의지 작용을 행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사랑을 받음으로써, 불가항력적인 은총을 비상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떠한 외적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내적 사랑에 의해서만 구별될 수 있다.<sup>57)</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총은 본성을 회복시켜 주는 가장 중요한 동력원(動力源)이다. 불가항력적인 은총을 통하여, 의지는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또한 사랑의 주입을 통하여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은 하나님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향유(frui, to enjoy)하게 되었으며, 자신을 비롯한 모든 세상 것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이용(uti, to use)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 2) 본성의 회복과 구원

어거스틴은 노예의지 속에 있던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거룩한 의를 수여 받게 되고, 참 자유를 획득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

57) Lohse, p. 115 ; 「기독교 강요」 32.

기쁨으로 예속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된다고 보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푸신 은총은 인간의지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게 하는 의지의 회복을 일으켰다. 의지를 분발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가면서, 온전히 예속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이러므로 인간은 본성이 회복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자유까지 다시 갖게 되었다. 어거스틴에게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개념이다.

어거스틴은 은총으로 의지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본성이 다시 회복된다고 보았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제반적인 능력들이 인간 속에는 결코 없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구원을 위한 은총은 불가항력적이며, 사랑의 주입에 의하여 특정하게 나타난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본성의 회복과 구원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님은 은총 사역을 통하여 인간 사이에 놓여 있던, 죄의 간격을 없애며, 인간에게 신앙도 갖게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층 더 명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free gift)인 은총에 의하여, 우리의 신앙까지도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총임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갖게 되는 신앙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어거스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였다.<sup>58)</sup>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그의 성육신,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것이다. 신앙은 사실들을 믿는 것이며, 구원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유일한 근원이며 방법이다. 믿음의 대상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총 자체이기도 하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은총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으로, 성육신 사건을 일으키셨기 때문이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원죄의 근원인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사건을 수행하셨으며, 하나님 자신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 인간 세계로 오시게 된 것이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인간의지의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반대하여 어거스틴의 이론은,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펠라기우스가 노예화된 인간의지를 높이는 어불성설을 자행하였다고 보았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결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설사 안다고 할지라도, 구원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나타나는, 은총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총은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가 즐거워하시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다. 은총은 인간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다. 어거스틴은 이 은총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특별히 세례라고 하였다.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시는 죄의 용서는, 세례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 세례를 통하지 않고는 유아들을 비롯하여 모든 인류가 죄 씻음을 받지 못한다. 성인들을 포함해서 유아들도 반드시 세례를

---

58) *Ibid.*, pp. 164f

받아야 한다고 하는 어거스틴의 세례에 대한 강조는,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 이 세례는 바로 원죄를 씻는 표로써, 다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길이었다.

세례를 통하여 신앙은 시작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된다. 이 신앙 위에 소망과 사랑이 더해짐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역은 특별한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으심으로써, 내적으로 성장하게 하신다. 이 성령이 역사하심에 따라, 인간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증가하게 되고, 인간 본성이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통하여, 인간의 의지는 점차적으로 더 자유롭게 해방된다. 그래서 인간을 계속적으로 불행하게 하는 타락의 결과였던 욕망의 끈을,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끊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니이브는 어거스틴의 구원론에 대하여, 인간이 영적 마음을 가진 인간으로 변화되는 것은, 인간 의지에 미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이며, 이러한 과정을 가리켜서 죄인이 의롭게 되는(justification) 것을 의미했다는 평가는, 그의 사상을 올바르게 평가한 것이라고 하였다.<sup>59)</sup>

어거스틴에게는 은총이 점진적 과정의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한 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감화력이었다. 그는 인간의 능력과 이성의 힘을 강조하는 펠라기우스를 용납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절대 은총과 주권사상을 강조함으로써, 죄를 극복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있는

---

59) *On Forgiveness of Sins, and Baptism, I. 23.*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였다.

새롭게 변화된 인간은, 세상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어거스틴은 인간의지가 의를 추구함에 있어서, 현재는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찌라도,(고후5:7)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리며, 참 빛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인한 은총의 결과라고 하였다.<sup>60)</sup>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받은 성도들은, 은총에 종속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수행하게 된다. 원죄를 극복하고 겸손의 문으로 들어간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죄짓는 것을 미워하게 된다. 그 결과로써 은총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활후의 누릴 수 있는 특별 은총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 죄를 지을 수 없으며(non posse peccare), 죽지도 않게 되는 상태(non posse mori)를 향하여, 현재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는 죄로부터의 자유나, 혹은 완전한 거룩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동시에 거룩한 천사로 남아있던 천사들과,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다.<sup>61)</sup> 이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자유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삶을 바라보며, 하늘의 삶에 대한 그림자처럼 역시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도록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신 겸손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함으로 현세에서도

60) 나이브, p. 232.

61) *Ibid.*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이들은 천상의 삶을 즐거워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믿음·소망·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과, 자신의 의지가 변화 받지 못하고 욕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악인들과는, 천차만별의 결과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으며,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sup>62)</sup>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이 작용하고 있는 인간 본성은, 현세에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본성은 부활 후 천상에서 완성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상적인 삶을 예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현세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 유사하게 된다.<sup>63)</sup>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본성보다도, 그리스도를 덧입음으로써 회복된 본성을 지닌 인간이, 부활 후 천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의(義)를 수행하면서 완전한 자유를 지닐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와 같은 삶을 앞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62) *Philip Schaff, p. 820.*

63) 이 문제들은 어거스틴의 예정론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어거스틴은 예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완전주권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예정은총에 관한 논증은 피하고 그 결과만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즉 어떤 사람을 은총으로 구하시고 어떤 사람을 버리기로 작정하시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생각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이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부패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의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신학이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매우 아름답고 자랑스럽게 느껴지지만,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아주 냉담하고 어둡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 한철하, pp. 281f.

그렇지만 성도들은 천국을 향해 도상(途上) 위에 있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기도 한다. 이 때마다 하나님의 효과적인 은총은 끝까지 성도들을 견인시켜 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회복된 본성을 사용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속되는 삶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죄의 결과인 죽음까지도 이러한 삶을 뺏을 수 없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된 본성을 지닌 성도들은, 이 땅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게 된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하며, 타락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을 은총으로 불러 주시고, 회복된 본성을 인하여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사랑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들은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을 이 땅에서 맛보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도들은 고전 13장 12절에서 예시해주는 삶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다. 또한 순례의 삶을 마칠때까지 견인 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은총의 권고 말씀이기도 하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으며, 그의 은총신학의 기초로 삼았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거스틴이 설명한 것처럼, 회복된

본성을 더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회복된 본성은 부활후에 하나님의 도성에서 완전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 III. John Calvin의 인간론.

#### A. 배경 : 생애와 사상.

요한 칼빈(John Calvin)은 1509년 7월 10일에, 불란서의 노용(Noyon)시에서 태어났다. 유아세례를 받고 그가 사제가 되기를 원했던 부친의 뜻에 따라 그는 교회의 아이로 자라났으며, 1521년(12세)에 카톨릭 교회에서 사제를 도우며 수입을 얻게 되었다.<sup>64)</sup>

1523년(14세)에 파리대학교 소속 la College de Marche에 들어가, 문과계통(liberal arts)을 배웠다. 칼빈은 그곳에서 M. Cordier에게 문법, 수사학을 배우며 르네상스 인문주의(The Renaissance Humanism)를 맛보기 시작했으며, 중세 스콜라주의 전통 신학도 접하기 시작했다.<sup>65)</sup>

1528년(19세)에는 신학연구를 위하여, 유명한 la College de Montaigu로 가서 토론하는 법과, 둔스 스코투스, 옥감, 비엘 등의 후기 중세기 스콜라주의 신학자들의 신학과, 롬바르드의 조직신학을 배웠다.<sup>66)</sup> 또한 같은 해에 칼빈의 부친의 뜻에 따라 the university of Orleans에서 법학을 연구하였다. 이때, 성경을 불어로 번역한 올리베탄의 도움으로, 기독교의

---

64) *City of God*, IX. 17.

65) T. H. L. Parker, 「John Calvin: A Biography」 (London: J. M. Dent & Sons LTD, 1975), p. 254에서 인용.

66) 이형기, *Ibid.*, p. 255.

참모습을 성서에서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sup>67)</sup> 그 후 2년 동안 Bourges 대학에서 루터 신학의 권위자인 Wolmar에게 헬라이어와 복음주의 신학을 배웠다.

1531년(22세) 부친의 사망으로 파리에 돌아온 칼빈은 인문주의자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다음해에 그는 세네카의 관용론(DeClementia)에 관한 주석을 출판하였다. 그해에 칼빈은 급작스런 회심(Subitia Conversio)을 체험하고 교황주의 미신으로부터 복음주의적 신앙으로, 스콜라주의 전통으로부터 성서적 단순성으로 변화되었다.<sup>68)</sup> 그러나 종교개혁운동에는 바로 참여하지 않았다. 1533년(24세)에 친구이던 파리대학 총장 Nicholas Cop의 취임연설문을 작성한 일로 박해가 시작되자 그것을 피해 파리를 떠나 1535년(26세)에 스위스의 Basel에 정착하여 “기독교 강요” 초판을 쓰고 다음해인 1536년에 출판하였다.<sup>69)</sup>

1538년(29세) 4월까지 칼빈은,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화렐(Farel)의 권고로 제네바에서 첫번째 종교개혁을 시도하였다. 1537년에는 제네바 시의회에 “제네바 교회의 조직과 예배에 관한 신앙고백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에 따라 성만찬을 월1회씩 실시하며, 교인들의 사정을 살피는 장로직의 신설과 파문시킬 수 있는 권한을 목사에게 부여하는 일련의 개혁조치를 단행하다가 1538년 시의회가 목사들의 파문권을 박탈하자, 이에 항의하여

---

67) T. M. Lindsay, *A History of Reformation, Vol. II.* (Edinburgh: T. & T. Clark, 1964), p. 94.를 이형기, *Ibid*에서 인용.

68) 이형기, *Ibid*, p. 255.

69) T. H. Lindsay, *op. cit.*, p. 94를 이형기, *Ibid*, p. 257에서 재인용.

제네바를 떠남으로써 1차 종교개혁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 후 부처 (Bucer)의 권고로 스트라스부르그에서 불란서 이민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한 칼빈은, 그 다음해에 시편찬송을 붙여 판으로 출판하였다. 이때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키프리안(Cyprian)의 말을 재확인하고, 칼빈은 두번째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그의 교회의 직제, 정치, 예배, 성례전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교회들이 취하게 되었다. 1543년 (34세)에는 “기독교 강요”를 다시 쓰고 성서주의 집필에 몰두하였다. 1599년(50세)에는 Geneva Academy를 세워 개혁신학을 가르쳐 전파하게 되었고, 그 해 “기독교 강요” 최종판을 전통적인 교의학 저술의 순서대로 사도신경의 구조에 따라 완성하였다.<sup>70)</sup> 1564년(55세)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는 구약주석에 몰두하였다.<sup>71)</sup>

## B. Calvin의 구원론적 인간론.

칼빈의 신학은 기독교 강요에 집약되었다. 칼빈 연구가들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분석함으로써 칼빈 신학의 구조를 찾으려고 하였는데, 이에

---

70) 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76), p. 310.

71) 이 초판은 율법, 신앙, 기도, 성례전, 거짓 성례전, 기독교자의 자유, 교회정치와 국가 등을 6장에서 다루고 있다. 저술 목적은 복음주의의 교리적 입장을 변명하고, 복음주의자들을 박해하던 플란씨스 1세 앞에서 복음주의자들과 그들의 신학을 변명하는 것이었다. 특히 교회론에 관하여 중요한 언명이 나타나는데, 교회가 교회다운 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수하게 설교하고 성례전을 올바르게 집행하는데 있다고 천명하였다. 이형기, *op, cit.*, pp. 264-265.

대해서 필자의 선생님이신 한철하 박사님의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쓴 목적은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독자가 성경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알게 하는 것”과 둘째는 “그것을 어디에 적용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더 말할 것 없이 독자로 하여금 성경속에서 “복음”을 찾고, 그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적용하게 하려는 것이다. 즉 칼빈은 신학을 하는 목적이 처음부터 자기 책의 내용을 잘 가르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독자로 하여금 “성경”에 눈을 돌리게 하고, 거기서 “복음”을 찾아 그 “복음”을 전파하여,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sup>72)</sup>

Barth가 Dogmatik를 쓰는 이유는 성경말씀이 “말씀”이 되게 하고, 설교의 말씀이 “말씀”이 되게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즉 “말씀 신학”의 핵심 내용인 “말씀 사건”(Ereignis des Wortes)이 일어나고, “계시 사건”(Offenbarungsereignis)이 일어나게 하는데 있다. 또한 Barth의 Dogmatik은 그 자체를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것은 가르치는 일들이 “강단”이나 “실생활”에서 그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에 목적이 있다. Barth 뿐만 아니라, 모든 신학이 다 같은 자기신학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칼빈은 자기신학 그 자체 속에서 의미를 찾게 하는 것이 아니고, 1)자기신학 밖에 있는 성경속에서 복음을 찾고, 2)그 복음을 죄인에게 전하여 구원하는 사역을 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다시말해서 서양신학은 하나같이 monistic system을 만들어 냄으로서, 하나님의

---

72) 한철하, *op, cit.*, p.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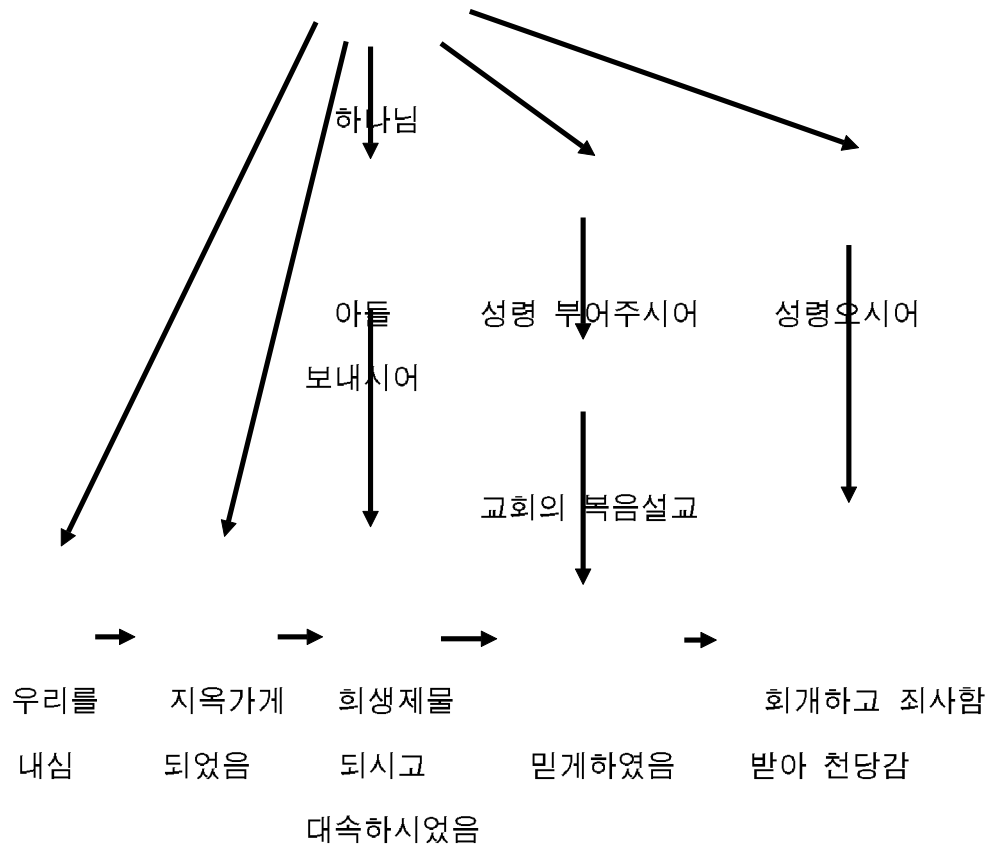
reality와 그의 경륜세계와는 무관한 비과학적 신학을 만들어 내는데 분망하나, 칼빈은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을 가르침으로, 참으로 과학적인 신학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sup>73)</sup>

그러므로 칼빈의 신학은 목회신학이요 선교신학이다. 성경 속에서 복음을 찾게 하고 그 찾은 복음을 전하게 하는 신학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칼빈 신학의 약점이 선교가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 칼빈 신학 전체는 “복음”을 죄인에게 전하는 “구원” 신학인데, 이와 같은 “선교”가 또 어디 있겠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신학”을 세워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신학을 따라주기를 바라지만, 칼빈은 자기신학보다 성경이 더 중요하고, 성경 속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더 중시하였으며,(Inst. III, 2:7) 오히려 그보다도 더 “죄인 구원”에 전체의 목적을 두고 있다. 물론 칼빈은 실제로 유럽 각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길 원했고, 또한 전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칼빈은 神學하는 의도자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과학적인 신학이 될 수 있었지만, 그의 신학 내용 자체도 극히 단순한 최권능 목사님의 “예수 믿고 천당”의 신앙을 말하고 있다. 한철하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강요 4권」의 도표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여 준다.

---

73) *Ibid.*



칼빈주의 체계에서는 객관적으로 말해 올바른 유신론이 확립되었고, 주관적으로는 순수한 종교적 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구원론적으로는 복음주의적 신앙으로 대변된다.

상기한 바 본 논문은 본인의 스승이신 한철하 목사님의 해석을 믿고 동의하며, “기독교 강요” 뿐만 아니라 칼빈의 신학 전체에서 더 나아가 전 기독교를 구원론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칼빈의 인간론은 구원론적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다.

## 1. 피조물로서의 인간

칼빈은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간은 피조물로서 묘사한다. 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와 분리된 인간이해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말씀과 영의 힘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는 것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은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새로운 힘을 부여하여, 계속해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며,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시면서, 그러한 아름다움과 큰 특권으로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표본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이다.”<sup>74)</sup> 라고 말하면서, 그는 세계가 인간을 위하여 창조됨을 강조하고, 또한 이 세계의 전 질서는 인간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설계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을 창조역사 속에서 어떤 존재로 지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인간의 구성요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인간창조의 특성

인간은 창조의 최고 걸작품으로써 그 자체가 하나의 소우주이며, 자신의 존재가 이 우주의 신비와 기적을 나타내므로 실로 인간 자신도

---

74) 벤자민 B. 윌필드 저, *op, cit.*, pp. 191-192.

놀라지 않을 수 없다.<sup>75)</sup>

인간에 관한 구성요소를 정신에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한 그것을 육체에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그 강조점을 정신에 두는 것이나, 또는 그것을 육체에 두는 것도 이 인간 구성요소에 관한 것을 규명하고자 하는 문제인 것이다.

인간 본성의 구성에 대하여 칼빈은 영혼과 육체로 구분하고<sup>76)</sup> 있으나, 칼빈의 영혼관을 자세히 보면 그의 사상은 헬라적 이원론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된다.<sup>77)</sup>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 칼빈은 어거스틴의 사상에 따라 영혼을 더 존중히 여긴다.

영혼이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체를 거소처럼 간주하여 거기에 머물며, 육체의 모든 부분에 생기를 넣어 주고, 육체의 모든 기관을 각각의 행동에 적절하고 유용하게 할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수위(首位)를 차지하며, 그리고 지상 생활의 의무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자극한다는 사실이다.<sup>78)</sup> 또한 칼빈은 종종 육체를 멸시하는 “감옥”이라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75) *Ibid.*, p. 195.

76) *Inst.*, I. 14. 20.

77) W. Niesel, 「칼빈의 신학사상」 기독교학술연구원 역, (기독교문화사협회, 1992), p. 75.

78) *Inst.*, I. 15. 2. 전통적으로 인간구조가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이분법, 영과 혼과 육체라고 하는 삼분법이 있어 왔는데, 칼빈은 이분법을 따른다. 칼빈 전통에 따르는 개혁교회 신학은 삼분법을 거부하면서 인간 속에는 오직 한 영이 있다고 주장하여 이분법을 지지한다. *Heinrich Heppe, Reformed Dogmatics, trans. G.T. Thomson (Grand Rapids: Baker, 1984), p. 221.*

표현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을 성부께 부탁하셨고, 스테반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혼을 위탁하였다는 사실은, 영혼의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었다.<sup>79)</sup>

이와 같은 칼빈의 견해는, 고대 철학자들처럼 영혼과 육체를 이분법으로 나누어, 전자는 선하고 후자는 악하다는 주장을 한 것처럼 보이나, 영과 혼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지는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sup>80)</sup>

인간은 다른 동물과 구별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깊은 신비를 지닌 특이한 존재로서,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전인적인(wholistic) 존재이다.

칼빈의 인간 구성요소에 대하여 홀(Charles A.M. Hall)은, 전인적인 표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의 양성(신성과 인성)이 구별될지라도 격리되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과 육체도 구분될 수 있으나, 서로 대적하거나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sup>81)</sup>

---

79) 이오갑, “인간론” 「칼빈신학해설」 (대한기독교서회, 1998), pp. 160-161. 첫째로, 칼빈은 영혼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영혼은 시작이라는 점이다. 즉 시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서, 인간의 창조시에 인간의 조상(彫像)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영원한 신적 본질로부터 유출된 것이 아니라 무로부터 창조되었다. 칼빈은 신플라톤주의의 영혼 유출설(emanation)을 배격한다. 둘째로, 칼빈은 영혼을 영원하고 신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신플라톤주의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영혼을 완성시켜주기까지 언제나 불완전하고 미완성인 본체로 간주한다.

80) *Inst.*, I. 15. 6.

칼빈의 인간 구조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전인적 존재로서 이해되어야 마땅하다. 칼빈은 아래와 같이 기독교 강요에서 설명하고 있다.

영혼은 육체가 아니며 육체는 영혼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은 영혼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고 육체에 대해서는 결코 해당되지 않으며, 또 육체에 대해서 하는 말이 영혼에는 결코 적합하지 않는 것이 있다. 또 사람 전체에 대해서 하는 말을 각각 영혼이나 육체에 대해서 한다면 반드시 부적당하게 된다. 끝으로 영혼의 특색을 육체에, 또 육체의 특색을 영혼에 옮기는 때가 있다. 그러나 이 부분들로 된 것은 한 사람이요 여러 사람이 아니다. 이런 표현들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된 한 인격(Person)이 있으며, 이 인격의 기반으로서 두 가지 서로 다른 본질에 있어서 한 인격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sup>82)</sup>

칼빈은 영혼의 기능을 오성(또는 지성(Intellectum))과 의지(Voluntatem)로 본다. 그리고 오성이 하는 일은 대상을 식별하여 대상을 각각 시인하던가 시인하지 않던가 하는 것이다. 한편 의지가 하는 일은 오성이 선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선택하며 추구하고 오성이 부인하는 것을 거절하며 피하는 것이다.<sup>83)</sup>

---

81) *Inst.*, I. 15. 2.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사도행전 7장 59절,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82) 창세기 1장 26-31절 참조.

83) *Charles A. M. Hall, With the Spirit's Sword-The Drama of Spiritual Warfare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Richmond: John Knox, 1968), p. 44.*

## 2) 창조에 있어서 인간의 위치.

기독교의 인간관은 인간을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칼빈은 창조된 인간의 위치를 밝히는 것은 창조에서부터 시작되며, 거기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으로 치장되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멋진 작품이 되었고, 눈을 외부로 돌려 다른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찬양하도록 하는 능력을 부여 받았다고<sup>84)</sup> 설명한다

인간은 피조물일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인격체이다. 인격체라 함은 일종의 독립성을 지닌 존재임을 가리킨다. 이 독립성은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나의 인격체는 결단력을 지니고 있고 목적을 세우며 그 목적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이다.<sup>85)</sup> 이와 같이 피조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분명히 하여 피조물과 창조주와는 성질이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졌다. 위펄드는 구영역판 칼빈 요리문답의 제1문답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사람이 창조된 것은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앞으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므로  
그에게서 인간의 행복을 발견하게 할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였다.<sup>86)</sup>

반면에 인간이 흠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간의 교만에 대하여

84) *Inst.*, II. 14. 1.

85) 안토니 A. 후크마, 「개혁주의 인간론」 류호준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p. 15.

86) 나용화, 「칼빈과 개혁신학」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p. 65.

견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창 2:7, 18:27). 왜냐하면 “흙집에 살며” (욘 4:19) 부분적으로는 흙과 티끌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자신의 탁월함을 자랑한다는 것 이상으로 어리석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sup>87)</sup> 그러므로 인간은 피조물로서 진흙에 불과하며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sup>88)</sup>

### 3)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

칼빈에 따르면 태초에 인간은 완전하고 고귀한 존재로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다른 피조물을 넘어서는 창조의 걸작품”으로 묘사 된다. 인간이 그렇게 고귀하고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인간의 육체성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영혼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sup>89)</sup>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것은 인간의 외형에서 빛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형상 본래의 좌소가 영혼에 자리잡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의 외형이 우리를 동물과 구별하고 분리시키며,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결합시켜 준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다른 동물들은 땅을 내려다보도록 되어 있으나 사람은 얼굴을 똑바로 들고 하늘을 응시하며, 별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형상과 결합시키기

---

87) *Inst.*, I. 15. 1.

88) *Romans 8:21*, *Hath not the potter power over the clay, of the same lump to make one vessel unto honour, and another unto dishonour?*.

89) 이오갑, *Op. cit.*, 168.



원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하여는 격렬한 논쟁을 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들 외부적 특성에서 보여지고 또 뻔적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영적이라는 것을 확고한 원리로 삼아야 한다.<sup>90)</sup>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종류의 동물보다 훨씬 능가하는 인간성의 탁월성 전체까지 확대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아담이 처음 받았던 그 완전함을 의미한다.<sup>91)</sup>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종류의 조직적 이론을 제공하지 않는다. 칼빈은 이러한 이유로 조심성 있게 그 의미를 진술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전통적인 스콜라주의자들의 견해<sup>92)</sup>를 취하지 않는다. 그는 “형상”(Imago)과 “모양”(Similitudo)을 구분하지 않으면서, 모습이라는 말이 형상을 더 잘 나타내고자, 혹은 반복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다는 말을, 칼빈은 모든 종류의 동물보다 훨씬 능가하는 인간성의 탁월성 전체까지 확대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이 처음 받았던 그 완전함을 의미한다. 아담은 처음에는 올바른 이해력과 감정을 이성애 종속시키고 일체의 감각을 바른 질서에 따라 조절하였다. 또한 아담의 탁월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외적인 은사에서

90) *Inst.*, I. 15. 3.

91) *Inst.*, I. 15. 3.

92) 전통적으로는 모양(*Similitudo*)과 형상(*Imago*)를 구분하여 전자는 타락시 소멸되었으나, 후자는 남아있다는 견해.

기인된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 좌소가 가슴과 마음, 혹은 영혼과 그 능력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인간의 어느 부분에도 심지어는 육체 자체에도 그 광채의 얼마나 빛나지 않는 곳은 없다고 하였다.<sup>93)</sup>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에 대하여 그의 원자료를 창세기보다는 사도들과 바울의 갱생된 인간에서 찾고 있다.<sup>94)</sup> 즉 하나님의 형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락 이후 인간의 오염된 본성의 회복이라는 주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sup>95)</sup>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참되고 완전한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킨다는 이유에서 제2의 아담이라고 부른다.<sup>96)</sup>

## 2.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어떤 종류의 동물을 훨씬 능가하는 창조의 걸작품으로서 영혼과 몸이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행복을 누리게 되었으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비본래적 상태인 타락한 인간을 이해하고자 한다.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었고 소멸되었다. 칼빈은 아담이

93) *Inst.*, I. 15. 3.

94) *Wilhelm. H. Neuser, Calvin as Confessor of Holy Scripture*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4), p. 180.

95) *Inst.*, I. 15. 4.

96) *Inst.*, I. 15. 4.

타락하게된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고 보았다. 아담이 자신의 위치, 즉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지켰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었건만 그는 자기 믿음에 대한 시험의 경고를 믿지 않았던 것이다.

아담의 복종심을 시험하기 위해,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이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 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었다. 나무의 이름만 보더라도 그 명령의 유일한 목적이 그가 자기 처지에 만족하여 악한 정욕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동안은 영생을 바랄 수 있다고 한 약속과 그와는 반대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맛보기만 하면 죽음이 있으리라고 한 무서운 경고가 그의 믿음을 시험하게 되었다.<sup>97)</sup>

칼빈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여 벌을 받은 것은, 어거스틴의 처음의 교만이 모든 악의 처음이라고 인정하면서 불순종이 타락의 시초였다고 말한다.

칼빈은 타락한 상태를 상론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제거되거나, 무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이 가혹한 단정을 내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소멸되거나 파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주 부패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다만 무섭도록 추한 것이다.<sup>98)</sup>

---

97) *Inst.*, II. 1. 4.

98) *Inst.*, I. 15. 4.

칼빈이 말하기를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고의적인 반역 속에서 산다고 하였다. 여기에 중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반역자이다. 타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성(자연)의 질서를 거역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인간에게 자연적인 본성이 되었다.<sup>99)</sup>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중의 본성이 존재한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다른 하나는 그 본성이 부패한 것이다.<sup>100)</sup>

아담에게 그의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던 것이 그에게 영적 생명이 되었던 것과 같이, 창조주에게서 떨어진 것은 영혼의 죽음이 되었다. 이것은 물려받은 부패이며 교부들은 이것을 “원죄”라고 불렀다. 여기서 죄라는 말은 이전의 선하고 순수했던 본성을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아담의 죄가 그 자신의 손실을 초래했을 뿐 후손은 해하지 않았다”는 펠라기우스의 견해를 칼빈은 모독적인 망상이라고 하였다.<sup>101)</sup>

우리의 본성은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하였으며, 이 때문에 우리는 의와 결백과 순결 외에는 아무 것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께 당연한 정죄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의 범행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부패가 아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죄 없고 책임 없는 우리가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 아니라,

99) *Inst.*, I. 6. 4.

100) T. F. Torrance, *Calvin's Doctrine of Man*. (London: Lutterworth, 1952), p. 107.

101) *Inst.*, II. 1. 5 ; 베버는, 언약의 역사가 상속의 역사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유전적인 죄”라고 하는 죄론은 “유전적인 언약”이라는 언약론과 상응하는 교리라고 보았다. O. Weber, *op. cit.*, p. 610.

그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 저주에 함께 밀려들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죄책이 있게 만들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인간이 범죄로 인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자 인간의 지성은 어두워지고 의지는 부패되었다. 칼빈은 타락 후의 인간의 모습에 관하여 “인간에게 어느 정도 지성과 의지의 기능이 잔존하여 지상적인 일에 관해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그 지성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의지는 부패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성은 진리를 추구하며 발견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sup>102)</sup> 하였다.

창조에 있어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창조의 면류관으로서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왜 고통 당하며 신음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칼빈의 전적 타락과 원죄, 그리고 노예 신분 하에 있는 인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1) 전적 타락

칼빈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인간의 교만을 다음과 같은 증언들에 의지해 없애고자 했다.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들이 되었다. (시14:1-3, 53:1-3)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는 속이는 일에만 사용된다.(시5:9)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시140:3)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재빠르며,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

102) *Inst.* II. 2. 18.

비참이 있다.(사59:7)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롬3:10-16, 18)

이런 우뢰와 같은 말씀으로 그는 어떤 특수한 사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 전체를 통렬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어느 한 시대의 타락한 도덕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성의 변함없는 부패성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의 바울의 의도는 단순히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책망하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재난에 휩싸였으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치려 한 것이었다.<sup>103)</sup>

우리가 앞에서 대답했던 것과 거의 같은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어느 시대에서나 본성에 따라 평생 덕을 추구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도덕적 행위에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나는 그들을 전혀 비난하고 싶지 않다. 그들의 바로 그 열성적인 성실성이 그들의 본성에 어느 정도의 순수성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범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본성에 따라 탁월하고 훌륭한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 매우 고결하게 처신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부패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

103) 휴 T. 커어 편, 「칼빈의 기독교 강요」 유원열 역, (서울: 기독교 연합신문사), p. 84-85.

생각해야 한다. 이 은총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정결케 하지는 않을지라도 내면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정욕대로 방탕하게 살도록 방임하신다면, 바울이 모든 인간들의 본성 속에 있다고 비난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자기 자신 속에 참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 분명하다. (시14:3, 롬3:12)

그러면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당신 자신은 “피 흘리는데 발이 빠른 사람들”(롬3:15) 중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도둑질과 살인으로 손이 더럽혀진 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이며, 입술에는 독이 있는”(롬3:13) 자들 중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무익하고 사악하며 부패하고, 살인적인 행위를 하는 자;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 마음 속 깊은 곳이 부패한 자; 그의 눈이 술수만을 쫓는 자; 그의 마음이 혈똥을 일만 열심히 하는 자; 한 마디로 그의 모든 부분이 무한히 죄를 범하려고 하는 자들 중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롬3:10-18) 모든 영혼이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언명한 이런 악행에 얽매어 있다면, 주님께서 인간의 정욕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성향에 따라 방황하도록 허용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제어하셔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하시지만, 인간의 본성을 내면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104)

타락으로 부패한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짓는 것이지 억지로 혹은

---

104) *Ibid.*, pp. 85-86.

강제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그의 심령의 간절한 성향에 의한 것이지 강요된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 자신의 정욕으로부터 유발된 것이지 외부로부터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너무나 부패하여 악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으며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인간이 정녕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에 예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다.<sup>105)</sup>

## 2) 원죄 속에 있는 인간.

칼빈은 아담이 지은 최초의 죄가 원죄라고 하면서 죄는 이전의 선하고 순수했던 본성을 잃어 버렸다는 뜻으로, 아담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에게 생명 되었던 것이 창조주에게서 멀어짐으로 영혼의 죽음이 되었다<sup>106)</sup>고 한다.

이 죄는 아담에게서 끝나지 않고 후손들에게 계속 내려가게 되었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원죄이다. 다시 말해서 인류 최초의 죄인인 아담의 불충은 원죄가 되어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받은 온전한 본성은 상실된 것이다.

이 죄는 인간의 구성요소들의 단순한 부패나 악화(惡化)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행위이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전향이 인간의 원죄(Peccatum Originale)”라고 설명한 니젤의 표현은 매우 적절한 것이다.<sup>107)</sup>

---

105) *Ibid.*, pp. 86-87.

106) *Inst.*, II. 1. 5.



원죄로 인한 타락은 우리를 “죄의 사슬아래 묶어 두고” 있으며, 인간의 전성향(全性向)속에 약간의 의성(義性)도 남아 있지 않다. 비록 원죄가 상세한 죄행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원죄가 인간 속에 없다는 증거는 안된다. “우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 안에는 확실히 죄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죄 받고 부패한 인류에 속하기 때문이다.<sup>108)</sup>

칼빈은 원죄의 정체는 우리 본성의 유전적 타락과 부패이며 영혼 모든 부분에 만연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들고, 다음에는 성경에(갈 5:19) “육체의 일”이라고 한 행위를 하게 만든다. 그리고 바울이 자주 죄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이것에서 나오는 행위, 예컨대 간음, 우상숭배, 도둑질, 미움, 살인, 등을(갈 5:19-21) 그는 “죄의 열매”라고 부른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행위를 보통 “죄들”이라고 부르며 바울 역시 그렇게 부른다.<sup>109)</sup>

칼빈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아담이 천성을 잃었을 때에,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천성은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며, 그 천성은 한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원죄의 유전에 대하여

107) W. Niesel,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p. 76.

108) *Ibid.*, p. 77.

109) *Inst.*, II. 1. 8.

주장하고 있다.

아담에게서 시작한 부패는 선조로부터 후손에게 전달되어 끊임 없이 흘러간 것이다. 전염은 육이나 영혼의 본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전염은 처음 사람이 자신뿐만 아니라 동시에 후손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천성을 가지며, 또 잃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자녀는 부모의 순결에 의해서 거룩하게 될 것이므로 (참조, 고전7:14), 경건한 부모에게서 자녀가 부패를 이어받는다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펠라기우스파는 말한다. 그러나 이 궤변에 대한 논박은 매우 쉬운 일이다. 자녀는 부모의 영적 중생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육적 번식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과 같이 죄 있는 불신자든 죄 없는 신자든 사람은 썩은 본성에서 자녀를 낳기 때문에 무죄한 자녀가 아니라 유죄한 자녀를 낳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정도 부모의 성질에 참여한다는 것은 특별한 축복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류가 받은 보편적 저주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죄책은 자연에서 오고 성결은 초자연적 은총에서 오기 때문이다.<sup>110)</sup>

칼빈은 이 부패는 우리 안에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열매를 맺는데, 이것은 인간이 타락으로 죄가 전가되면서 우리 안에 남은 것은 육육 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는 마치 뜨거운 용광로에서 불꽃과 불똥이 튀어나오며 샘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시초의 의의 결핍”을 원죄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은 이 용어의 의미를 전적으로 이 정의에 포함시키지만 그 위력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 이는, 우리의 본성은 선이 결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결코 가만히 있도록 놔두지 않는 각종 악을

---

110) *Inst.*, II. 1. 7.

생산할 능력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원죄를 “육욕”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적절한 단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인정하지 않겠지만 사람에게 있는 것은 이해력 으로부터 의지에 이르기까지 또 영혼 으로부터 육체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육욕으로 더럽혀지고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보다 간단히 말하자면 진적 으로는 인간은 육욕 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첨부하는 경우에 그러하다.<sup>111)</sup>

성경은 모든 사람이 사실상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임을 가르친다. “죄의 보편성”이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7)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준비는 세례 요한이 그토록 강력하게 선포하였던 보편적인 죄성에 대한 인식이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과 그로 인한 보편적인 회개의 필요성을 가르치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sup>112)</sup>(마 4:17) 아담의 후손인 이 보편적인 죄성은 아담의 죄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모든 인간은 그의 최초 범죄 가운데 그 안에서 범죄했으며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 3) 노예신분 하에 자유의지.

칼빈은 “자유의지는 노예로 포로 당하였으므로 의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 할 힘도 없다.” “인간의 의지는 성령이 없이는 속박자이며, 구금자인

---

111) *Ibid.*

112) J. G. Machen, *The Christian View of Man*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37. pp. 182-3.

정욕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유가 되지 않는 한 자유가 아니다.”라고 했다.<sup>113)</sup>

그래서 칼빈은 의지가 부자유하다고 본, 어거스틴의 주장을 인용하며 의지의 자유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의지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욕망이 수갑을 채우고 정복했기 때문이다. 의지가 죄악에 빠져 정복당했을 때에 인간의 본성은 그 자유를 잃기 시작했다. 사람은 자유를 악용하여 자기와 자기의 의지 모두를 잃어 버렸다. 자유의지는 노예가 되어 그 결과 지금은 이를 행할 힘이 없다. 율법이 명령하고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듯이 행동할 때에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돕고 사람의 의지가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의는 실현된다. 사람은 자유의지의 큰 힘을 받고 창조되었으나 죄를 지음으로써 잃어버렸다. 자유의지는 은총에 의해서 확립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17)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114)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담에게 주신 자유의지도, 자연인들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토런스는 이성의 분별력과 의지의 판단능력이 파손 당해 창조당시 수여 받은 의로움, 정직함, 선은 물론이요 의지도 변화고 말았는데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까지도 상실되었다고 설명하였다.<sup>115)</sup>

---

113) *Ibid.*, II. ii. 8.

114) *Ibid.*, II. ii. 8.

115) T.F. Torrance, *Calvin's Doctrine of Man*. (London: Lutterworth, 1952), p. 88.

칼빈은 사람 스스로 선을 행하는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선행을 할 수 있으려면 은총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이 자유의지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은 당연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자유 의지론은 하나님의 영예를 빼앗을 위험성을 항상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sup>116)</sup>

펠라기우스를 비롯하여 에라스무스(Erasmus)등은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인들도 자유의지를 지녔다고 보았다. 그러나 어거스틴과 루터를 따라서 칼빈도 노예의지를 주장하고 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 선을 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길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sup>117)</sup>

아담은 자유의지에 따라 죄를 지은 것이다. 만일 그 죄가 아담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죄라고 할 수가 없다. 또한 우리는 죄의 전가로 우리를 지배하는 악(惡)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범죄하도록 종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범죄하는 일 뿐인 것이다.<sup>118)</sup>

죄가 처음 인간을 노예로 만든 후, 그 지배력은 모든 인류에 미쳤을 뿐 아니라 각 개인의 영혼도 완전히 점령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칼빈은 사람이 죄에 노예가 되어 본성만으로는 선을 사모하거나 추구할 수 없다고 본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되나 역시 자발적으로 짓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사람의 의지를 기수의 명령을 기다리는 말로

116) *Inst.*, II. 2. 10

117) 이종성, 「신학적 인간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p. 118.

118) *W. Niesel, op. cit.*, p. 102.

비교하였고, 하나님과 악마를 기수로 비교하였다. “만일 하나님이 타신다면 온전하고 숙련된 기수이기 때문에 말을 올바르게 인도하신다.” 그러나 죄악의 원인을 사람의 의지 밖에서 찾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사람의 의지에서 악의 뿌리가 솟아나며 사람의 의지가 사탄의 나라의 토대, 즉 죄의 토대가 된다.<sup>119)</sup>

칼빈이 인간의 전적타락, 원죄의 유전, 자유의지의 노예를 언급하는 것은, 피조된 인간이 창조자 되신 하나님에게서만 구원을 받기로 하기 위함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존하고 있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았다.

### 3. 구속된 인간.

칼빈이 말하기를, 타락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다고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인간 안에 창조주의 영광을 거울로 보기를 즐겨했다”<sup>120)</sup>고 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파양되었다. 타락 이후의 죄인된 인간의 현상은 슬픈 현상이외에는 아무 것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타락 이전에는 순수한 창조질서에 속한 상태였는데 이제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모두 파괴되고 말았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인간의 어떠한

---

119) *Inst.*, II. 4. 1.

120) *Inst.*, II. 4. 1.

부분에만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전체적 의미에서 죄라고 보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상태에서부터 인간은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 회복이 인간 편에서는 불가능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다.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회복의 사역을 행하시는 것이다. 인간을 처벌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회복시키고 살리며 용서하는 것이 그의 뜻이다. 이 일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자신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나타날 때, 하나님 편에서도 그리고 인간 편에서도 원만한 관계가 성립되어서 구원의 사역을 감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곧 성육신이요, 십자가요, 부활이요, 승천이요, 재림인 것이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인간회복의 원형이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연합 될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인간회복의 원형이 되며 유일한 기관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회복된 인간상을 칼빈은 신생, 의인, 성화라고 하였고, 바울의 중심사상인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가 곧 그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신생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거의 없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다”<sup>121)</sup> 라고 하였다. 이 놀라운 사실은 인간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회복된 인간상이다.

---

121) *Inst.*, III. 3. 9.

### 1) 칭의 된 인간.

죄인된 인간을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이 타락의 상태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두 가지 은혜, 즉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받는다. 칼빈은 칭의에 이어 성화를 다루고 있다. 성화에서와 같이 칭의도 역시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에서 온다.<sup>122)</sup> 칭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의인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sup>123)</sup> 그러기에 칭의는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이 의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행동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행위로서의 칭의는, 의의 전가와 죄사함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sup>124)</sup>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로 칭의는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얻은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함으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의로운 자로 보이는 것이다.<sup>125)</sup> 둘째로 칭의는 우리 인간들이 그리스도와 교통한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심판 행동이다.<sup>126)</sup> 셋째로 우리는 불의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선언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적 행동으로서의 칭의는 값없이 주어지는

---

122) *Inst.*, III. 5. 6.

123) *Inst.*, III. 11. 2.

124) *Ibid.*

125) *Ibid.*

126) *Inst.*, III. 11. 23.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의 중보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기사, 우리 자신의 무죄함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 시켜 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sup>127)</sup>

칭의는 신앙과 행위의 혼합이 아니다. 우리의 의의 근거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다.<sup>128)</sup>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의 의의 은혜를 입으려 한다면, 자기의 의를 버려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의인화함에 있어서 인간이 이룬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나타날 정도로 완전한 복종을 하지 못한다. 하물며 성화된 인간도 자신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없다.<sup>129)</sup> 한편 칼빈은 신앙의 칭의 교리만을 말하지 않고 이중의 은혜, 즉 하나님께서 화해를 이루시고 죄인들을 받으시는 칭의의 은혜와 신자들의 내부의 변화인 중생과 성화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 다른 내적인 변화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칭의의 은혜에 대한 칼빈은 철저한 믿음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sup>130)</sup> 신앙의 칭의와 신앙의 열매로서 행함의 칭의를 구별하여 그 근거를 다같이 그리스도에 둔다. 이로써 공적으로서의 행함의 칭의 사상을 배격하면서 동시에 행함의 의, 즉 기독교 윤리의 필연성과 그 의미를 강조하여 신앙과 행함의 이율배반을 피했다. 물론 칭의는 신앙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성화 된 인간은 기독교의 자유 안에서

---

127) *Ibid.*

128) *Ibid.*

129) *Inst.*, III. 11. 23.

130) *Inst.*, III. 14. 2.

열매로서의 행함의 의를 갖는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칭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온다. 칭의는 우리가 실제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적 행동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와 사죄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다. 그러기에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러나 칼빈은 이중의 교리를 말함으로써, 신앙의 열매로서 오는 행함의 의를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행함을 의의 조건으로 보지 않고, 칭의된 인간이 그의 자유 속에서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봉사라고 보고 있다. 그러기에 칼빈은 아무런 곤란을 느끼지 않고 선행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그 밖에 다른 어느 신학체계에서 보다 엄격한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

## 2) 성화 되는 인간.

칼빈은 성화를 칭의의 지속적인 발전으로서 기독교강요 3권14장 이하에서 선행론을 다루면서 언급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중생을 통한 자기 부인의 삶과 다른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가 선행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논지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듯이 우리의 선행도 똑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다. 즉 선행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행위의 의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논점이다. 그는 가르치기를, 모든 선행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치 우리의 것으로 여겨서 우리에게 상주시는 것이라고 한다.<sup>131)</sup>

이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인 선행이, 우리에게 어떠한 과정 속에서

구체화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1) 성도의 내적 투쟁 (영과 육의 갈등)

칼빈이 사용하고 있는 영·육의 개념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내적 투쟁이 어떻게 규명되고 있는가를 상세히 고찰해 보자. ‘육(flesh), 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단지 몸(body)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soul)과 영혼의 각 부분을 지칭하고 있다.<sup>132)</sup>

칼빈에 의하면 영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서<sup>133)</sup> ‘하나님의 성령이 악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로 인해서 아주 잘 개조된 까닭에 하나님의 형상이 빛나는 영혼의 부분을 지시한다.<sup>134)</sup>

갈라디아서에는 육(flesh)이 타락한 인간본성을 나타내는 반면, 영(spirit)은 ‘갱신된 성질 혹은 중생의 은혜’로 규정하고 있다.<sup>135)</sup> 그러므로 여기에서 영(spirit)은, 자연인의 구조에서 바디(body)와 대조되는 영혼(soul)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 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131) 한상화, 「신본주의 신학입문」 (생명의 말씀사, 2000), pp. 189-190.

132) *Ibid.*, pp. 191-192.

133) *Comm. Rom.* 7:14.

134) *Ibid.*, pp. 191-192.

135) *Comm. John.* 3 : 6.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카톨릭 신학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데 그들은 (카톨릭) 육(flesh)을 육욕적(sensual) 또는 관능적이라고 지칭하는 부분에 국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중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부적당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우리의 일부분이 부패한 것이기 때문이다.

창조된 성품을 가르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영 (spirit)이라는 용어가 영혼을 대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라고 칼빈은 역설하고 있다.<sup>136)</sup>

지금까지 논술했던 영과 육에 관한 모든 이해를 정리하면, 영(spirit)이란 중생한 성도에게 형성된 새로운 성품으로서 성령으로 정결케 되며 부패한 본성을 새롭게 개조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서 빛나는 영혼의 부분을 의미하며, 주의 율법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진 반면<sup>137)</sup> 육은 인간이 모태로부터 갖고 나온 선천적인 성품으로서 저급하고 세속적이어서 중생한 성도라 할지라도 완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그 안에 타다 남은 죄의 부스러기로도 말미암아 악한 충동을 일으키며’<sup>138)</sup>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 율법을 반대하는 옛 사람의 본성’을 가르키는 것이다.<sup>139)</sup> 그러면 한 인간의 내면에서 두 본성으로 인한 투쟁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칼빈은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영과 육의 내적 투쟁은, 이미 중생한자에게서 발생하는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부패한 정욕과 투쟁하려고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열망하는 신자일지라도 진지한 소원이 없기 때문이다.’<sup>140)</sup>

---

136) *Comm. Rom.* 7:14.

137) *Comm. Rom.* 7:14.

138) *Ibid.* 7:18. 육과 영의 두 용어는 영혼에 속한 것으로서 후자는 갱신된 부분과, 그리고 전자는 본성적 감정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39) *Comm. Gal.* 5:17.

위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중생한 신자일지라도 죄의 흔적이 완전히 소멸된 기록하고 흠 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sup>141)</sup>

그리스도인의 생은 곧 성화의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칭의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하나님께 용납되었지만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는 아직도 죄의 씨-부패성-가 남아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 사람 안에서, 그의 영이 주의 율법에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만큼 육(flesh)의 잔재들이 그 율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sup>142)</sup> 다시 말해서 성도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투쟁(영·육)은 “자연인의 본성에 속해 있는 육의 잔재들이, 성령의 은혜로 창조된 새로운 본성과, 서로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서 연유하는 것이다.<sup>143)</sup> 영은 사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지만, 육신의 그것은 반대방향으로 이끌어간다.<sup>144)</sup>

그러면 이와 같은 내적 갈등과 투쟁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전술한 바와 같이, 육은 옛사람의 성품으로서, 인간성 자체가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완고하게 반역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있다.

140) *T. F. Torrance, op. cit.*, p. 54.

141) *Comm. rom.* 7:14.

142) *Inst.*, III. 3:10.

143) *Inst.*, III. 3:10.

144) *Comm. Gal.* 5:17. 여기에 덧붙이면 중생 후, 영과 육의 싸움이 발생하는 것은 성령이 인간의 영을 새롭게 창조하기까지 육적 본성에 대해서 실제적인 저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투쟁은 롬7: 22에서 언급하듯이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후 발생하는 것이며, 성령에 의해 중생한 사람에게서 비로소 투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이 우리 안에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sup>145)</sup> 중생한 성도일지라도 자기의 자유의지로서는 악을 극복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육간의 투쟁 속에서 영혼의 기능들(지성과 의지)은 어떤 관련을 갖게 되는가를 살펴보자. 칼빈은 성령이 그들 속에 내주하게 될 때, 반드시 그들의 주요한 기능들을 지배한다고 역설한다.<sup>146)</sup> 인간은 그의 주요한 본성에 비추어 규정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만일 사람이 육(flesh)적인 방향으로 기울었다면, 지성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여 더럽고 추한 욕정을 좇으며, 의지는 그러한 지시에 따라 정욕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그러한 인간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규정된다. 반면에 영을 쫓아가면 지성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의의법을 지각하며, 의지 또한 바른 결단을 행사한다.<sup>147)</sup> 결국 인간은 어느 한편으로 택하여 행동하게 되며, 그의 전존재가 영적이거나 육적인 것이 되어 중립적인 상태는 없는 것이 된다.<sup>148)</sup>

회복은 어느 한 순간에 혹은 하루, 일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45) *Comm. Gal.* 5:16. 성령께 의탁하는 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붙들어 주실 때 가능한 것이다

146) *Comm. Rom.* 8:9.

147) *Inst., II.* 2. 18. 인간은 육(flesh)의 본성에 이끌리어 행동하면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고전2:14) 육체의 일을 따르게 되며(갈5:17)영적(*spirit*)본성에 이끌리어 행동하게 되면 그는 곧 성령을 좇아 행하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필자 주)

148) *T. F. Torrance, op. cit., p.* 112.

계속적으로 때로는 느린 것 같은 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선택 안에서 육체의 부패를 씻으시며 죄를 척결하시고, 그들 자신을 하나님에게 성전으로 헌신하게 하며, 그 정신을 진정한 경건으로 새롭게 하신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전과정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이루어진다. 이 투쟁은 육체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지속적인 회개를 해야한다고 주장한다.<sup>149)</sup>

성화는 새롭게 창조된 칭의의 인간이,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 삶의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투쟁으로 볼 수 있다. 칼빈은 칭의와 성화는 구별될 수는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는 관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화는 칭의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인간 종국의 생활까지 일어나는 내적 싸움의 결과로 발생하는 결과물이다. 물론 이 관계도 인간이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투쟁에 의한 자력으로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동적인 역사 속에서, 인간이 단지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성령은 단순히 무엇을 유지하는 힘만은 아니다. 칼빈은 성화의 과정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 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 받고, 그 영향 아래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 훈련과 가르침을 통해서 규율을 준수하게 되고,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 순종하는 영 안에서,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

149) *Inst.*, III. 3. 9.

칼빈은 율법의 세 가지 사용목적(을 강조한다. 그럼 칼빈이 말하는 율법의 용법이나 기능에 따른 구분을 살펴보자. 첫째 용도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고, 인간의 불의함을 정죄하여 인간 스스로가 그 비참함을 인식하고, 절망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sup>150)</sup> 둘째 용도는 불신자에게 율법에 대한 형벌의 공포를 통해서, 죄를 억제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칼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율법의 본래 목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성령께서 인간 마음속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종해야 할 기독교적인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성화의 삶을 끌고 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칼빈은 율법의 포기가 아니라, 기쁨으로 율법을 준수하게 되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더 철저하게 익혀가며, 그것을 납득하여 확신케 하는데 최선의 기구가 되도록 한다.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더욱 순전한 지식으로 나아가며, 육체의 태만을 극복하여 더욱 선명한 삶으로 전진하게 된다.<sup>151)</sup>

칼빈이 여기에서 말한 세번째 용도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성화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에서 고찰해 본 것처럼, 칼빈에게 있어서 성화의 삶이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 속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 싸우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해야 하는 하나의

---

150) *Ibid.*, II. 7. 10.

151) *Ibid.*, III. 7. 12.



과정이었다. 칭의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주의 형벌은 면했지만, 삶의 과정에서 완전한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함 앞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목표로 설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따라가야 할 것이다. 인간의 성화는 이 세상에서 결코 완성될 수 없다. 그러나 영원한 소망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 때, 인간의 부족한 것이 다 채워지고 완전한 성화는 이루어질 것이다. 성화의 삶이란 이런 소망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가 이미 성취해 놓은 승리를 확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날마다, 더러워진 옷을 하나씩 벗는 것처럼, 새롭게 변화해가면서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성스러운 나그네길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성화와 성령.

성령은 신앙을 일으키는 분일 뿐만 아니라, 점차로 신앙을 증진시켜 마침내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하는 분이다.<sup>152)</sup> 그러면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증진과 성화의 삶을 가능케 하시는가?

### ① 죄를 깨닫게 함

칼빈은 “날마다 범하는 죄와 우리를 중대한 타락으로 끌고가 오랫동안 묻혀 있다고 보여지는 죄들이 기억에 떠오르고 또 부끄럽게 생각되어야

---

152) *Inst.*, III. 1. 1.

하고, 육신의 더러움으로 물들어 있음에 대하여 자인해야 한다.” 고 말한다.<sup>153)</sup> 그러나 이 죄의 깨달음은 언제나 신앙에서 나오고, 신앙은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일어난다.<sup>154)</sup> 성령은 죄로 물든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세우시며, 죄인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가 무죄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밝은 빛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칼빈은 이것을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영혼의 슬픔과 고통이며 이것은 죄를 인식하는 것과 그 죄로 인하여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는데서 온다는 것이며, 이것은 누구든지 죄를 진정으로 인식하게 될 때에는 죄를 진정 미워하고 혐오하기 때문이며 중심으로 자기 자신이 불쾌하게 생각되어 자신의 비참과 망하게된 형편을 고백하고, 새 사람되기를 회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sup>155)</sup> 이렇게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식함으로써 좌절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서 떠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그의 긍휼과 은혜 및 구원을 맛봄으로, 자신을 분기시켜서 기운을 얻고 용기를 내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일어난다. 이 말의 뜻은 “중생으로부터 일어나는 거룩하고 경건히 살고자 하는 요구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는 죽는 것을 말한다.<sup>156)</sup>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과거에 속한 정욕과 옛 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데

---

153) *Inst.*, III. 3. 18.

154) *Inst.*, III. 2. 33.

155) *Inst.*, III. 3. 3.

156) *Inst.*, III. 3. 3.

이것이 바로 성화의 생활이며, 이것은 자기부정과 통회 위에 세워지는 것으로 칼빈은 보고 있다.” 회개는 중생이요, 중생의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써 말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설명한다.<sup>157)</sup> 그리하여 성령은 성도의 죄를 끊임없이 책망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계속 성화를 촉진시키시는 것이다.

## ② 의에 대하여 알게 됨

의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역사 중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예수님께서 의에 대하여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5:6라고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고 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의를 알지 못하며 의롭고 거룩한 성화는 전혀 불가능하다. 이것은 타락으로 인하여 창조의 기본질서가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은 손상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칼빈은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파괴되어 버렸다고는 못할지라도, 남은 것은 심각하게 일그러질 만큼 부패해 버렸다.<sup>158)</sup> 고 말한다. 이러한 인간이 스스로는 의를 접하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은 신앙의 시동자이며 한층 더 강화시켜서,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는 분”으로 나타난다.<sup>159)</sup> 그래서 신앙의 창시자요 원인으로써 성령을 설명하기에 이른다. 사람의 사정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157) *Inst.*, III. 3. 9

158) *Inst.*, I. 15. 4.

159) *Inst.*, III. 2. 33.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알 수가 없다(고전2:9:11). 그러므로 이러한 의에 대한 지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발걸음을 옮길 수 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찾도록 분발해야 하며, 신앙의 목적지와 그 길로써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60)</sup>

### ③ 사죄의 확신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그 죄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십자가의 공로를 믿게 하고, 사죄의 확신을 얻게 한다.

모세는 하나님을 뵈옵고 자신의 무능력과 죄만 안 것이 아니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하다”는 성결도 알게 되었다. 다윗도 침상을 적시고 통회하며 사죄의 확신을 가졌고,(시6:8-9) 바울도 성령을 받은 후 나는 죄인 중에 죄수라고 고백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롬 8:31-36)라고 확신하였다. 성령은 내 죄에 대해서는 검사의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구원과 사죄의 확신이 없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며 사죄의 확신을 결하고는 성화의 생활로 이어질 수 가 없는 것이다.<sup>161)</sup>

칼빈은 복음의 전체를 회개와 사죄함에 포함시키고 있다.<sup>162)</sup> 주님께서는

160) *Inst.*, III. 2. 1.

161) 김성한, 「칼빈주의 해설」 (서울: 영음사, 1976), p. 160.

자기 자녀들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성령의 성결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였다.<sup>162)</sup>

④ 성화의 완성.

“성도의 완전” 혹은 “완전한 성화” 등은 실로 난해한 주제 중, 하나이다. 이것은 난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당한 매력을 주는 용어이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여기서 칼빈이 성화의 완전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을 연구하고자 한다.

㉠ 불가능한 지상완전.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전반에 걸쳐서, 성도는 성화와 순결을 위해서 분투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성화의 완전과 완성에 관하여는 지상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한다. 비록 성도는 부단한 전진을 추구해야 하지만, 지상에서는 그것이 지상에서는 가능하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중생을 통해서 죄의 결박에서 풀려난다. 그러나 그들은 육의 괴롭힘을 전혀 느끼지 않으리 만큼, 완전한 자유를 소유하게 된 것은 아니다. 그들 안에는 싸워야 할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훈련이 계속된다. 그들은 훈련을 받을 뿐 아니라, 자기의 무력을 더욱 깨닫게 된다.<sup>164)</sup>

162) *Inst.*, III. 3. 19.

163) *Ibid.*,

164) *Inst.*, III. 3. 1.

이상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칼빈은 성도의 지상완전을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비록 그리스도의 공로로써 속죄함을 받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완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지상에 있을 때에는 여전히 불완전함 가운데 둘러 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완전을 자신할 사람은 있을 수 없으며, 다만 모든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부단한 투쟁을 계속할 뿐이다. 따라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선행 역시 불완전한 것이 된다. 그들의 선행은 선행임에도 불구하고, 유적인 죄의 냄새를 풍기게 되며 따라서 신적인 거룩함의 선행은 아직 불가능한 것이다.<sup>165)</sup> 더 나아가 칼빈은 “우리가 지상에서 경주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 자신이 완전하게 되었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마귀적인 공상이라고”<sup>166)</sup> 단언한다. 이것은 칼빈이 성도의 지상 완전을 철저하게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칼빈에게 있어서 지상 완전이란 불가능한 것이며, 그것은 오히려 마귀적인 발상으로 이해된다.

그러면, 칼빈이 지상 완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에 관해서 칼빈은 어거스틴에게 기대어 있다. 그래서 그는 성도가 지상에서 불완전한 이유를 ‘용광로 같은 정욕의 잔존’으로 주장한다.<sup>167)</sup> 성도는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삶을 시작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광로 같은 정욕이 잔존한다는 것이다. 결국 칼빈은 이러한 인간적인 정욕의 뿌리가 세례 후에도 잔존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며,<sup>168)</sup> 이러한

---

165) *Inst.*, IV. 1.20.

166) *Inst.*, IV. 1.20.

167) *Inst.*, IV. 15. 11

정욕의 잔존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지상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그는 불완전함을 내포하는 완전이라는 용어는 인정한다. 그는 어거스틴이 사용한 “완전한”이라는 형용사를,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완전함이라고 해명함으로써 내적인 성실성과 겸손의 완전을 의미하는 완전의 요소는 인정한다.<sup>169)</sup> 그러나 그가 말하는 이러한 완전 역시, 불완전함을 내포하는 완전이기에 결국 신적인 완전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칼빈은 성도의 지상 완전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짓는다.

그러므로 칼빈이 말하는 성도가 지상 완전이 불가능한 이유는, 잔존하는 정욕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과는 거리가 멀다.

#### ㉠ 완전의 시기와 성도의 태도.

칼빈은 이제 완전의 시기를 논한다. 지상에서의 완전을 철저히 부인하는 그는, 성화의 완전을 내세로 돌리게 된다. 성도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와 합하는 날이, 곧 성도의 참된 완성으로 가능한 것으로 주장한다. 그것은 그 때에 육신의 정욕과, 죄의 잔존 세력에서의 해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다음에서 명백해진다.

신자는 모두 이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168) *Inst.*, IV. 15. 11에서 칼빈은 성도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은 세례를 통해서 그 지배력은 상실된다고도 주장하여, ‘잔존함’과 ‘지배함’을 조심스럽게 구별한다.

169) *Inst.*, III. 17. 15.

날, 흠이나 책망 받을 것이 없도록 해야한다(골 1:22참조). 그러나 현세에서는 가장 훌륭한 계획도 진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주와 완전히 결합될 때 뿐이다.<sup>170)</sup>

신자들이 복음에 대한 지식과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면, 그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였으므로, 주 예수님의 날까지 그것을 또한 완성하실 것이다(빌 1:6). 그러나 이 일이 완성되는 것은 그들이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늘 아버지와 같이 되며, 참으로 자녀답게 되는 때이다.<sup>171)</sup>

---

170) *Inst.*, III. 17. 15.

171) 이종성, 「신학적 인간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p. 118.



## IV. Augustine과 Calvin의 인간론 비교.

### A. 일치점

어거스틴과 칼빈의 인간론의 일치점은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중심 인간관이라는 명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모두 인간에게 있어서 참되고 근본적인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는데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시 인간을 무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으로 보았다. 그리고 타락 후 인간은 스스로 선을 택할 수 없는 노예의지를 가진 존재로 보았다.

원죄는 우리의 본성의 유전적 타락과 부패이다. 즉 원죄는 유전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공통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 1. 하나님과의 관계중심 인간

어거스틴과 칼빈은 실체론적으로 인간을 파악하고 있다. 이들의 인간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여, 기독교 인간관으로서 인간을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참되고 근본적인 지혜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아는데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인간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의 두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기독교 강요” 1권 1장 1항의

설명도, 인간론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상관관계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다. 칼빈에 있어서 인간 구원의 중심요소 중의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어거스틴은 인간론과 죄론에 있어서도 은총 사상과 연결하였다. 그는 은총사상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어거스틴도 은총의 개념 속에서 인간론을 이해함에 있어, 하나님과 인간을 불가분의 관계로 설명한다.

따라서 어거스틴과 칼빈 모두 인간 이해에 있어서 창조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를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창조된 인간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고, 타락한 인간이해를 통해서도 인간의 실존적이며, 실제적인 모습을 날카롭게 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원받은 인간을 통해서도 인간의 삶의 방향과 종말까지의 미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칼빈과 어거스틴의 입장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들은 창조자, 구속자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 2. 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

이들은 또 하나의 일치점을 가르친다. 어거스틴과 칼빈은 플라톤주의나 신플라톤주의와는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 보고 있다. 즉 그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영혼을 수여해 주심으로, 인간이 비존재에서 존재로 되었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이라는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 3. 타락 후 노예의지.

펠라기우스를 비롯하여 에라스무스(Erasmus)등은,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인들은 자유의지를 지녔다고 보았다. 그러나 어거스틴과 칼빈은 노예의지를 주장한다. 이와 같은 사상은 루터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아담이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 선을 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길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sup>172)</sup>

인간에게 어떤 종류의 자유로운 결정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나 이들은 주장하기를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삶,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피조물로서의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

이와 같이 어거스틴과 칼빈은 공통적으로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보며, 모든 면에서 극히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 4. 원죄의 유전.

---

172) 이종성, 「신학적 인간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p. 118에서 재인용.

죄가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성경 로마서 5장12절의 명백한 증거와는 달리, 펠라기우스는 죄가 유전이 아니라 모방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과 칼빈은 후천적인 죄악에 의해서 우리가 부패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죄악 가운데 우리의 모태로부터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불결한 씨의 후손인 우리는 모두가 죄의 오염 가운데 태어난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을 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오염되고 더럽혀져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거스틴과 칼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에서 그 일치점을 찾아볼 수 있다.

## 5.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

아담의 범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범 죄의 결과가 하나님 형상의 상실과 인간 본성의 부패라면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역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겠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안에서만 회복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인간의지의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반하여 이들은 인간의지는 타락되고, 전인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결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설사 안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질서는 인간본성의 각부분만이 아니라 상호간 조화와 협력을 가져온다. 즉 인간 영혼의 여러 부분들의 기능들이 창조 때와 같이 마찬가지로 다시 상응하도록 조절되어진다. 이것은 곧 창조시에 가졌던 본래적인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거스틴과 칼빈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좌소는 영혼이라고 공통적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영혼의 기능은 후술하겠지만, 그들의 견해 차이가 다소 있다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회복이란 곧 영혼의 회복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형상회복에 대하여 알아보자.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형상회복은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의 타락한 의지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역사하시기 시작함으로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본성회복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나타난 은총의 결과이다. 그리고 은총이 가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세례라고 하면서, 세례는 원죄를 씻는 표로서 다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길임을 설명한다.

세례를 통하여 신앙이 시작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더욱 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된다. 또한 어거스틴은 협력적 은총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회복은 부활 후 천상에서 완성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반하여 칼빈은 인간회복이란 지성과 의지의 회복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시에 받았던 인간의 지성 기능들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고 오염되었다. 그래서 모든 행동 속에는 부정직하며 부도덕하고 무질서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이것들이 인간을 따라 다니게 되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범하는 길밖에 없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칼빈은 인간의 지성은 스스로 맹목적인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소명을 알 정도로 충분한 지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sup>173)</sup> 영혼회복의 첫 단계는 지성기능이 회복되는데서 시작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지성의 기능 회복은 칼빈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한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를 찾아 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끌리게 될 때는 정신과 마음이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하여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지성은 그 기능이 타락한 본성자체로는 무능력하며 오직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새롭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면서 천상적인 일에 대하여 눈을 돌릴 수 있게 된다. 또한 본성이 회복된 인간은 지상에 속한 것에 대해서도 올바른 통찰력을 얻기 때문에 특별히 도덕적 혹은 윤리적 규범의 인식과 실천에 있어서 대단한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한편 타락한 인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임하면 악한 의지는 선한 의지로 대치되어진다. 이런 의지의 갱신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선행에 있어서 자기의 주도적인 의지로 실현하려는

---

173) *Inst.*, II. 2. 12.

것은 부당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롭게 되면서 변화된 지성과 의지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신앙)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선을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는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어거스틴과 칼빈의 사상은 바울이나 루터에게서와 마찬가지로, 구속사의 맥락에서의 창조, 타락, 구속의 하나님 형상회복의 인간이해에 있어서 일치점을 보이며 이는 또한 기본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전통주의 신학 사상에 있어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 B. 차이점.

어거스틴과 칼빈은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일치하지만, 상기한 바와 같이 세부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회복에서 영혼의 기능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영과 육의 관계에서 헬라적 철학의 영향을 받은 어거스틴은 육을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영의 제어를 받는 것으로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칼빈은 어거스틴과 달리 영과 육은 창조 때에 완전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회복 후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타락의 결과를 논함에 있어서 어거스틴은 부분적인 의지적 타락을

주장하는 반면 칼빈은 전적 타락을 말하고 있다. 즉 이들 타락론의 차이점은 인간영혼의 기능과 관계된 측면이 강하다. 이들은 또한 회복된 인간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말하면서, 어거스틴과 카톨릭의 구원 사상인 협동적 은총을 강조한 반면에, 칼빈은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켜 설명할 수는 있으나,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성령께서 능동적으로 인간에게 역사하실 때 인간은 수동적인 순종을 설명한다.

### 1. 하나님의 형상.

어거스틴과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시에 그 피조물의 성격을 가장 잘 규명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이라고 하였다. 어거스틴과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잡고 있는 본연의 처소를 영혼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류가 타락함으로써 상실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사역에서 회복 된 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을 이야기 할 때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어거스틴은 인간영혼의 기능으로서 삼위일체의 한 반영으로 지성과 의지 그리고 기억으로 말한다. 그러면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은 무엇인가? 영혼은 지성과 의지와 기억(intelligence or understanding, will, memory)을 갖고 있다. 어거스틴은 이 세 영역이 한 실체(one substance), 한 마음(one mind), 한 생명 (one life)을 구성하면서, 서로 존경하며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았다. 즉 기억과 이해력(또는 지성)과 의지에서 우리는 능력과 지식과 이용(利用)을 보아야 한다. 기억과



이해력과 의지는 본질적으로는 하나이며, 상대적 관계적으로는 셋이다. 어거스틴은 이것이 삼위일체의 한 형상을 반영한다고 보았는데, 기억을 영혼의 기능으로 보는 어거스틴의 이러한 사상은, 그의 독특한 사상중 하나이다.<sup>174)</sup> 이에 반하여 칼빈은 영혼의 기능을 오성 또는 지성(Intellectus)과 의지(Voluntas)로 본다. 그리고 오성이 하는 일은, 대상을 식별하여 대상을 각각 시인 하든가 시인하지 않던가이며, 의지가 하는 일은 오성이 선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선택하며 추구하고, 오성이 부인하는 것을 거절하며 피하는 것이다.<sup>175)</sup>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외형 가운데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고유한 자리는 인간의 외형이라고

---

174) 기억과 이해력과 의지라는 이 삼일 현상은 삼위일체의 유사현상으로서는 제9권에 있는 마음과 지식과 사랑보다 우수하다. 기억과 이해력과 의지에는 동등한 실체성이 있으나 마음과 지식과 사랑에는 그것이 없다. 전자는 이 세 기능이며, 그 하나 하나에 마음 또는 정신전체가 있다. 기억은 기억하는 마음 전체이며, 이해력은 인식하는 마음이며, 의지는 결정하는 마음 전체다. 마음의 한 본질이 세 형태의 하나 하나에 있으며, 이 형태들은 각각 서로 다르다. 그러나 세 본질이나 세 마음이 아니다. 마음과 지식과 사랑이라는 삼일현상에서는 지식과 사랑과 마음의 개개의 행동이고 기능이 아니다. 어떤 인식 행동 하나는 인식의 일반적 형태에 있는 전체 마음이 아니다. 이런 것은 마음의 기능이다. 사랑한다는 한 행동은 사랑이라는 또한 의욕이라는 일반적 형태에 있는 전체적 마음이 아니다. 이런 것이라면 그 순간적, 일시적 행동은 영구한 기능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미(9.2.2) 각주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삼일 현상에서는 마음만이 한 실체이므로, 삼일현상에서는 결합이 있다. 기억과 이해력과 의지라는 삼일현상은 동등한 실체성이라는 견지에서는 삼위일체의 유사현상으로서 적합하다. 그러나 삼위일체 내의 서로 다른 의식을 고려할 때에는 불완전하다. 기억과 이해력과 의지라는 세 기능은 서로 객관적으로 있어서 의식의 세 형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서로 대명사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 돌리는 것과 같은 각 위격만의 행동을 인정할 수도 없다. 그 뿐 아니라, 마음의 기능은 이 세 가지뿐이 아닌 점에서도 이 삼일 현상은 결점이 있다. 예컨대, 상상력과 마음의 한 기능이다. 이 상상력에도 마음의 본질이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삼위일체론」 김중흡 옮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X, xii.

175) *Inst.*, I. 15. 7.

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두가지 의미에서 사용된다.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자신의 반영이다. 직접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태도에서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의와 선과 지혜의 뛰어난 표본이다.<sup>176)</sup> 이와 같이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우수성과 완전성을 말하면서 이 모든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간주한다.

## 2. 영육의 관계.

어거스틴은 보다 더 헬라주의와 이원론적 사상의 영향 때문인지 영이 육을 제어해야 한다고 말하고, 육을 제어 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이 죄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어거스틴은 아담에게 주어진 은사를 초자연적인 은사와 자연적인 은사로 구분하여 전자는 영으로서 천상생활과 영생복락을 얻는데, 후자는 육으로서 양심, 자유의지 등으로 보아 육을 영보다 저급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이유가 협력설을 펼치게 된 동기이다.

타락 이후에도 인간의 육체는 성적욕망의 노예가 되었다고 어거스틴은 주장한다.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 할 때 전인격적으로

---

176) *Inst.*, I. 15. 4.

이해를 하였다. 이것은 창조, 타락, 구속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영과 몸이 전적으로 타락하였다고 말하면서, 육체와 영이 부패함으로서 육이 영을 제어하는 헬라주의적 주장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칼빈의 견해는 고대 철학자들처럼 영혼과 육체를 둘로 나누어 다른 본질로 보고, 전자는 선하고 후자는 악하다는 이분법적 주장인 듯 보이나 사실은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지는 않았다. 이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 계 이 다 .

이러한이유는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sup>177)</sup>

인간은 다른 동물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깊은 신비를 지닌 특이한 존재로서,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전인적인(wholistic) 존재이다.

칼빈의 인간 구성요소에 대하여 홀(Charles A.M. Hall)은, 그 전인적인 표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그는 그리스도의 양성(신성과 인성)이 구별될지라도, 격리되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과 육체도 구분될 수 있으나, 서로 대적하거나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sup>178)</sup>

이와 같은 칼빈은 인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로서 그 구성요소는 영혼과 육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영과 육이 다같이

177) *Inst.*, I. 15. 6.

178) *Inst.*, I. 15. 2.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사도행전 7장 59절,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창조되어서 이 두 부분이 합하여서 한 인격을 형성하는 두 본질이 있다고 하였다.<sup>179)</sup>

그 뿐만 아니라 타락이전의 본래적인 상태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서 완전하였다.<sup>180)</sup>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서 창조주의 영광을 거울로 보기를 즐거워하였다고 칼빈은 말했다.<sup>181)</sup> 즉 칼빈의 인간론은 그가 영혼과 육체를 가르치고, 영혼만을 중시하고 예찬하는 이원론적인 헬레니즘에 빠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 3. 의지적 타락과 전적타락.

어거스틴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친다. 아담이 자신의 길로 갔을 때, 자유의지를 상실했고, 후손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없으며, 실존적인 삶 속에서 의지의 분열을 경험하게 되었다. 원래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는 능력이 의지라고 할 때, 지성은 인간이 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판단의 근거를 제공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의존하며, 찬양하며 더 깊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성이 알려 주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의지를 소유한 아담은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욕구대로 움직임으로서, 후손들에게 지성과 의지, 그리고 선한 의지와 악한의지의 분열된 상태를 남겨주게

---

179) *Inst.*, II. 14. 1.

180) *Inst.*, I. 15. 3.

181) *Inst.*, II. 12. 6.

되었다. 이와 같이 어거스틴은 인간의 타락을 논함에 있어서, 의지적 타락을 주장하는 반면, 칼빈은 전적으로 타락 발전 시켰다.

타락의 결과 자연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과 의지는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된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를 기쁨으로 수행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다. 이러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죄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제 올바른 이성과 판단력의 상실은 인간을 죄의 세력 하에 떨어뜨림으로써 우리의 전 생각(mind)과 마음(heart)과 모든 행동은 죄 짓는 성향만을 갖게 되었다.<sup>182)</sup> 칼빈은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에 관한 순수하고 명백한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이요 의지까지도 타락하여 타락후의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의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앞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설명할 때 영혼의 기능은 지성과 의지 혹은 이성과 의지라고 보았었다. 그 중에서도 이성의 기능은 이 타락으로 인하여 무지로 바뀌고 말았기 때문에, 구원 문제에 관하여 이성은 완전히 맹목적인 것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sup>183)</sup> 즉 이와 같은 사실을 두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타락이 어느 한 부분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 영역에 해당된다”고 말하였고, “이 타락은 결코 아담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태어나는 그의 후손들에게

---

182) *T.F.Torrance*, p. 91.

183) *Inst.*, II. 2. 18.

유전된다고”<sup>184)</sup> 주장한 것이다.

#### 4. 협력적 은총.

어거스틴과 칼빈은 은총론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의 은총론은 협력적 은총론으로서, 창조시 아담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사로 인하여 영에 의해 육을 지배하고 제어할 수 있는 존재이었지만 타락이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과 함께 회복된다는 협력적 형상회복을 주장한다. 즉 어거스틴의 협동적 은총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거나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선행은총을 받은 이후로 점진적인 과정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선을 택할 수 있도록 그의 의지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협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는 갱신됨으로써 점차적으로 참되고, 완전한 자유, 즉 아담이 지녔던 본성적 자유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선행적 은총과 협력적 은총의 단계를 지니고 있는 효과적인 은총의 성격은, 불가항력적 은총(irresistible grace)이라고 불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지보다 앞서서 활동하시고, 이 활동에 의하여 변화된 인간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효과적인 은총의 중요한 역할은 사랑의 주입(infusion of love)이다. 인간은 죄악 중에 부패 덩어리이기 때문에,

---

184) *Inst.*, II. 2. 8.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사랑의 강제를 받음으로써, 불가항력적인 은총을 비상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어떠한 외적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내적인 사랑의 역사에 의해서만 구별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sup>185)</sup>

반면에 칼빈은 주장하기를 인간에 있어서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느 한 순간에 혹은 하루, 일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때로는 느린 것 같은 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선택 안에서 육체의 부패를 씻으시며 죄를 척결하시고, 그들 자신을 하나님에게 성전으로 헌신하게 하며, 그 정신을 진정한 경건으로 새롭게 하신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전과정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이루어진다. 이 투쟁은 육체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지속적인 회개를 해야한다고 주장한다.<sup>186)</sup>

성화는 새롭게 창조된 칭의의 인간이,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 삶의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투쟁으로 볼 수 있다. 칼빈은 칭의와 성화는 구별될 수는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는 관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화는 칭의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인간 종국의 생활까지 일어나는 내적 싸움의 결과로 발생하는 결과물이다. 물론 이 관계도 인간이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서,

185) *On the Spirit and Letter*, 42.

186) *Inst.*, III. 3. 9.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투쟁에 의한 자력으로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동적인 역사 속에서, 인간이 단지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말씀 훈련과 가르침을 통해서 규율을 준수하게 되고,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 순종하는 영 안에서,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어거스틴이 많은 헬라주의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고, 펠라기우스 등과의 많은 논쟁들 속에서 기독교 중심 진리를 깨닫고 가르치게 되면서 기인된 것이라 생각된다.



## V. 결론.

르네상스 이후의 인본주의적 사조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낙관적인 인간론을 발전시켰다. 그리하여 다윈, 프로이트, 마르크스 등의 과학적 인간론이 현대사상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헤겔 이후 포이에르바하(Ludwig Feuerbach)는 신학은 신학이 아니라 인간학이라 했고, 또 사람이 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했다. 이와 같이 포이에르바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 인간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라고 하면서 인간을 인간이 논하므로 신학은 결국 인간론, 혹은 인간학이라고 했다.

작금에 와서 현대 과학은 유전자(gene) 조작을 통하여 인간의 온전한 복제를 가능케 하는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생명공학을 발달시켰고, 그리고 이러한 인간복제는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망각시켰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는 신학적 전통적인 인간이해를 왜곡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어거스틴과 칼빈의 인간이해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어거스틴과 칼빈의 전통적인 인간이해는 대동소이하나 그 내용은 다소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칼빈이 어거스틴의 인간론을 성경적으로 더욱더 발전시키는 근간이 되었다.

어거스틴은 헬라주의와 이성주의에 사상적 기반으로 한 인간론을 가지고 출발하여, 펠라기우스의 논쟁을 통해 기독교의 전통적인 인간론으로

더욱 발전 시켜갔다. 나아가 칼빈은 어거스틴의 인간론을 구원론적으로 성숙 발전시켰다.

창조된 인간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타락한 인간이해를 통해서는 인간의 실존적, 실제적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필요성을, 구원받은 인간을 통해서는 인간의 삶의 방향과 미래를 인식한다는 점에서 인간론은 어거스틴과 칼빈 신학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다.

어거스틴의 신학사상은 두 가지 대립적 사상 즉, 로마 카톨릭교와 개혁신학 사상들이 한 신학자의 사상으로부터 분파 되었는데, 그의 초기의 저술에서 로마 카톨릭교가 또 후기의 사상에서 신교가 파생되었다.

로마 카톨릭교회와 개신 교회가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된 한가지 이유도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의 논쟁으로부터 얻어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이로 인하여 칼빈은 개혁주의 칼빈주의를 탄생시켰다. 즉 다시 말해서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새로운 신학적 방법과 신 인식에 새로운 길을 모색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영혼의 기능으로서 삼위일체의 한 반영으로 지성과 의지 그리고 기억으로 말한다. 이에 반하여 칼빈은 지성과 의지로 보았다.

어거스틴이 은총론에서 말하기를 협동적 은총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선행은총을 받은 이후로 점진적인 과정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선을 택할 수 있도록 그 의지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인간의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협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는 갱신됨으로써 점차적으로 참되고, 완전한 자유, 즉 아담이 지녔던 본성적

자유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

어거스틴에게는 칭의의 개념이 약하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더 중요시하였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저절로 사랑한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까닭은 하나님의 은총이 선행적으로 작용하여 협동적으로 역사 하도록 인간의 의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은총에 대한 강조의 결과이다. 이에 반하여 칼빈은 칭의는 역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온다고 하였다.

월필드는 칼빈이 어거스틴에게 진 빚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내적으로 볼 때 종교개혁은 어거스틴의 은총의 교리의 궁극적인 승리라 하였다.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은 바울에게서 그것들에 대한 영감을 얻어낸 어거스틴에 의해 은연중 형성되었다고 한다.

칼빈의 인간에 관한 사상이 그의 저술 전체 속에서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인간론 구조나 내용, 성격 등은 내적으로 연관성을 가져 전체적으로 하나의 질서 속에 묶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이라는 관점이다. 이는 흔히 "구속사"라고 부르는 신학의 전통적 관점과 같은 범주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상당히 다른 새로운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Lohse, Bernhard. *A Short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Translated by F. Ernest Stoeffler. Philadelphia : Fortress, 1966.
- Schaff, Philip.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3 : Nicence and Post-Nicene Christianity. Grand Rapids : Eerdma ns, 1910.
- 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I-IV. Edited by John T. McNeil, and Translated and Indexed by F.L.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n.d.
- Torrance, T. F. *Calvin's Doctrine of Man*. Westport: Greenwood Press, 1977
- 루이스 벌콕. 「기독교 교리사」 신복윤 역. 서울: 성광 문화사, 1987.
- 벤자민 B. 워필드. 「칼빈 · 루터 · 어거스틴」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 문화협회, 1988.
- 에밀 부룬너. 「에밀 부룬너의 신학입문」 이원규 역. 서울: 백합 출판사, 1973.
- J.L. 니이브. 「기독교 교리사」 서남동 역. 서울 : 대한 기독교서회, 1983.
- J.N.D. 켈리. 「고대 기독교 교리사」 김광식 역. 서울: 맥밀란, 1988.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공역. 서울: 생명 말씀사, 1988.

- 칼 야스퍼스. 「어거스틴의 생애와 사상」 김쾌상 역. 서울: 전망사, 1981.
- 빌헬름 니이젤.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 니켈리. 「성경에서 본 인간」 이승구 역. 서울: 정음 출판사, 1993.
- 안토니 A 후크마. 「개혁주의 인간론」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1.
- 존 칼빈. 「기독교 강요」 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 니그렌. 「아가페와 에로스」 채위 역. 「세계기독교 사상전집 제2권」 서울: 신태양사, 1983.
- 버트란드 러셀. 「서양 철학사」 한철하 역. 서울: 대한 교과서, 1984.
- 벵트 헤그룬트. 「신학사」 박희석 역. 서울: 성광 문화사, 1989.
- A. 하지. 「하지 조직신학」 고영민 역. 전2권. 서울: 기독교문사, 1981.
- I. C. 헤넬 편. 「폴 틸리히의 그리스도교 사상사」 송기득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 후스토 L. 곤잘레스. 「기독교 사상사」 이형기 역. 전3권.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출판국, 1988.
- T.H.L. 파커,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 성 아우구스티누스, 김종흡 역, 「하나님의 도성」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 Peter Brown, 차종순, 「Augustine of Hippo」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2.
- E.S.모이어, 「인물중심의 교회사」 대한 기독교 서회, 1994.
- 피터 브라운, 「어거스틴의 생애와 사상」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3.
-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론」 김병호 역 서울: 집문당, 1983.
- 에밀 부른너, 「에밀 부른너의 신학 입문」 이원규 역 서울: 백함출판사, 1973.
- W. Niesel, 기독교 학술연구원 역, 「칼빈의 신학사상」 기독교문화시협회, 1992.
- B.F.스키너 「자유와 존엄을 넘어서」 차재호 역 서울: 탐구당, 1982.
- 에밀부른너. 「위기의 신학」 이희숙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4.
- 김종웅, 「고백론」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4.
- 김성환. 「칼빈주의 해설」 서울: 영음사, 1976.
- 나용화. 「칼빈과 개혁신학」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2.
- 송기득. 「인간」 서울: 한국 신학연구소, 1987.
- 선한용. 「시간과 영원」 서울: 성광 문화사, 1987.
- 이종성. 「신학적 인간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판부, 1997.
- 이형기. 「종교 개혁사상사」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 1984.
- 이장식. 「기독교 사상사」 전2권.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86.
- 최재희, 김태길, 「철학개론」 서울: 서울대 출판부, 1967.
- 한국칼빈학회. 「칼빈신학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86.

\_\_\_\_\_, 「논문을 내기까지」 대한 예수교장로회 신학대학대학원, 1968.

\_\_\_\_\_. 「한국 신학좌표」 「신학사상 제1편」 한국 신학연구소, 1973.

\_\_\_\_\_, 「칼빈의 과학적 신학방법」 한국칼빈학회, 1999.

한상화. 「신본주의 신학입문」 생명의 말씀사, 2000.

한국칼빈연구원역, 「칼빈의 신학논문」 서울: 기독교 문화협회, 1986.

**ABSTRACT****A Comparative Study of Doctrines of Anthropology  
Aurelius Augustine's and John Calvin's**

Lee, Gye-Neung, Th. M.

The Graduate school  
of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Since the days of the Early Church, many people have upheld and argued Augustine's view. For this reason, Pelagius argued against Augustine's view and the Semi-Pelagians also adhered to Pelagians' viewpoint. Furthermore, in the latter part of the Middle Ages, the humanists of the Renaissance also praised the noble ability of human beings.

Nowadays, the humanists are loudly claiming man's individuality and autonomous freedom in spite of man's enormous evil and corruption in this present age. So in this study I compared John Calvin's



understanding of man which holds that man cannot do anything to save himself in the sight of God with Augustine's understanding of man which know and reside in His Grace.

I also explored concerning the theological doctrine of man so as to face the challenge of modern humanism.

Augustine, and John Calvin do not understand men from men's own viewpoint. Rather, they understand men from God's perspective and thought, especially in relation to God's absolute sovereignty. Therefore, They see man kind made in the image of God in three stages as a man of possession, a man of loss, and a man of restoration.

Also Augustine and Calvin paid special attention to the redemption of man through Jesus Christ. Accordingly this thesis analyzes and describes human beings as they should live under 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

Augustine explained that a man was created with the dust and God gave the Spirit to him. Because a man was created from nothing, he was the one who always depended on God, A man cannot exist by himself, and especially, because God created a man in the image of God.

Augustine regards the state of function of the Spirit in which the image of God resides as 'intelligence,' 'will' and 'memory.' Especially, Augustine puts emphasis on the function of 'will.' Accordingly, he argues that adam had the free will to choose good and evil. But a man

who was created for worshipping God and for having relationship with God, fell into depravity by abusing his free will.

Augustine thought that human nature could be restored by the grace of God, and the grace was the power and gift from God which sustained human nature. This grace was originally given to Adam but he lost human beings' original nature on account of his depravity and eventually he passed on original sin to his descendents. So, human beings, the descendents of Adam were unhappy because of death, original sin, and the bondage of the will, but they did not die in vain. Rather humans could live with hope through the power of God.

Human endeavor could not free a man from tragedy. A man could be free only by the grace of God. Augustine's 'grace effective' was more specifically operative than Adam's 'grace available.' Augustine's concept of grace was effective enough to experience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that should be operated through Jesus Christ.

Therefore, in the Christian doctrine of man, human being's unhappiness can be overcome by the hope given by the grace of God. According, to the Augustine's doctrine, it shows, we have to know and reside in God's Grace.

Calvin thinks that a true knowledge of man is achieved by knowledge of God, and that a man can know himself through the knowledge of God.

Because God the Creator has created man, the creature should depend on God. The composition of man, the creature, includes the spirit and flesh. Dualistic philosophy regards the spirit as immortal and superior to the flesh. Calvin sees man as not having supreme intelligence, so his doctrine of man explains God's absolute sovereignty.

Man i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nd thus is superior to all other creatures because of this.

Calvin thinks man's depravity comes from his own unbelief, because man cannot avoid being depraved because he misuses the free will given to him, so he is responsible for his own depravity. Because his depravity and original sin have caused man to sin and have changed man's original nature, man is helpless before God. Accordingly, man lost the image of God given at creation. Eventually man's spirit died because it was separated from the Creator.

According to Calvin,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man are ignorance, slavery of the will, and loss of spiritual life. Depraved and corrupted man can be restored to God's image through Jesus Christ who is the perfect image of God. This is in spite of human beings having lost the image of God which was given at the time of creation.

Calvin says that the sin of Adam can be washed away by the righteousness of Jesus Christ and that the damnation of Adam can be overcome by Jesus' grace. Moreover, this grace comes through the Word

of God. Therefore, faith is a gift of God given by His grace. The Holy Spirit is the One who leads us to participate in His wonderful grace for salvation. The Holy Spirit enables man to be saved through Jesus Christ. Therefore the sovereignty of God enables man's spirit to overcome the flesh.

In the course of a saved man's life, there should be an undeviating and requisite course toward progressive sanctification.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is inseparable.

Calvin says that the justified man is the one whose sin is forgiven. Therefore, man's justification comes from his faith in Jesus Christ. Man's perfect sanctification will be achieved when he reaches the Kingdom of God in his eternal home.

Augustine, Calvin paid special attention to the redemption of man through Jesus Christ. Accordingly this thesis analyzes and describes man as he should live under 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

Finally, Augustine's and Calvin's understanding of man are biblical. They believe in the facts revealed in the redemption are closely related to the thought of God's absolute sovereignty.

They never regard man as having high and lofty power. Rather they describe man as one who is doomed to die and who should be saved

The depravity of Adam and the inheritance of original sin has

caused man to be miserable. For these reasons, human beings in this era are unhappy. Therefore, it is unreasonable to interpret man's condition by the mind of man. Rather we have to think of man as one who should live in relationship with God.